

02

February 2026
vol. 298

Style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weet Weddings

BIG BANG
ORIGINAL
UNICO



H
U
B
L
O
T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Flowerlace
Clip and pendant

Contents

06_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08_ **SCENARIOS**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을 위해, 플로럴 드레스부터 삼페리까지 아름다운 신부를 위한 우아한 웨딩 셀렉션.

09_ **ARTISTRY OF TIME** 작은 위치 다이얼에 수놓은 로맨틱한 아름다움.

11_ **FLY ME TO THE MOON** 모양도 컬러도 색도 브랜드마다 개성을 자랑해 보는 재미를 더하는 문페이즈 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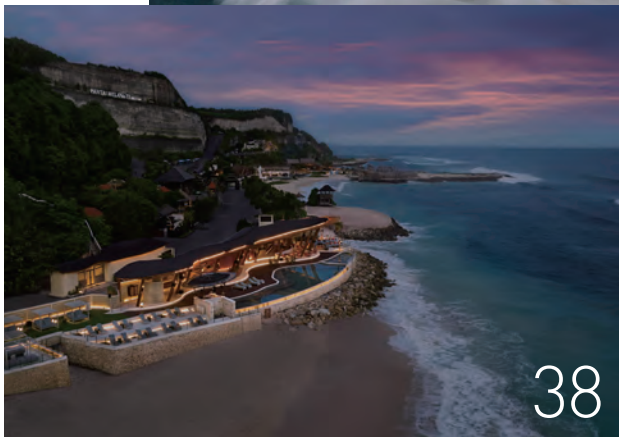
12_ 대만의 '허리' 도시는 어떻게 문화적 존재감을 키워인가
대만 중부의 '허브' 역할을 하는 타이중(Taichung)은 산업 성장과 더불어 경제적 문화 인프라까지 가세해 '글로벌 문화 도시'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문화도시로의 변화상에 맞물린 타이중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16_ **BIG TIME FOR REBIRTH** 지난해 백방탄생 20주년을 맞이한 위블로는 올해 역시 끝없는 혁신과 도약을 향해 나아간다.

20_ **SPHEND IDOL** 산뜻한 옐로 주얼리가 빛나는 화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스며들 때.

21_ **CELESTIAL CODE** 주얼리의 아름다움을 넘어, 별자리를 테마로 개인의 정체성과 서사를 담은 아몬 반클리프 아펠의 조디악(Zodiac) 컬렉션.

22_ **UNDER COVER**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감싸는 대담한 사이즈, 스포티한 감성, 그리고 안정감 있는 실루엣의 조합으로 완성한 고글형 선글라스 6.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력서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감하게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력서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23. **STROKE OF LEGACY** 블랑팡 CEO 조르
지오 사르네(Giorgio Sarne)와 직접 만나 나
는, 브랜드 비전에 대한 이야기.

24. **ENDLESSLY BLESSED** 무한한 축복 속
에서 피어난 팔연의 아름다움.

34. **INNOVATION IN MODERN CRAFT** 유
니크한 디자인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기술력
이 결합된 스포츠 브랜드 오니초카타이거의
첫 번째 자체 생산 공장 이노베이티브 팩토
리. 브랜드의 저력과 일본 장인 정신의 가치
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현
장'이다.

36. **GET THE LIST** 사랑을 고백하는 달, 고민
없는 최고의 기프트 선택권.

38. **발리 최남단, 럭셔리 파라다이스** 인도네시아
발리주 울루루두 절벽에 힐튼 최상위 럭셔리
컬렉션인 LXR의 철학 아래 설계된 우마나
발리, LXR 호텔(Umana Bali, LXR Hotels &
Resorts)이 위치한다.

39. **THE ULTIMATE RENAISSANCE** 사랑하
는 이에게 시간을 초월한 궁극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귀중한 장미로 완성한 다울 프레스티
지 레퍼 디자인으로 완벽 결선.

40. **조금 더 나게, 휴식의 본질을 정의하다** 발리
스미바 해변의 가장 조용한 끝자락에 자리한
더 크라운 스미바 & 더 클럽 바이 더 크라운(The
Legian Seminyak & The Club by The
Legian)은 진정한 쉼을 찾는 이들에게 휴식
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공간이다.

41. **HERITAGE IN SCENTS** 오랜 헤리티지와
깊고 높은 큐레이션으로 런던을 대표하는
디자인 브랜드 리버티(Liberty). 6만여 개의
퍼퓸 이야기 브랜드 영감받아 탄생한 리버티
뷰티가 국내 첫 매장을 오픈한다.

Style조선일보

대표 발행처 cch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러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린 stylechosun.kr.kyy@chosun.com,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산정임 sji@chosun.com
 메인 에디터 boming0129@gmail.com 디자인 나나나나투두나.kh2002@chosun.com 기획팀 수정 박민정
 광고 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식 adjporns@chosun.com 이정희 yls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감독 hg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혜·재판 인혜 타라티미즈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러온 비즈스튜디오 110호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for Intelligent Spending



style chos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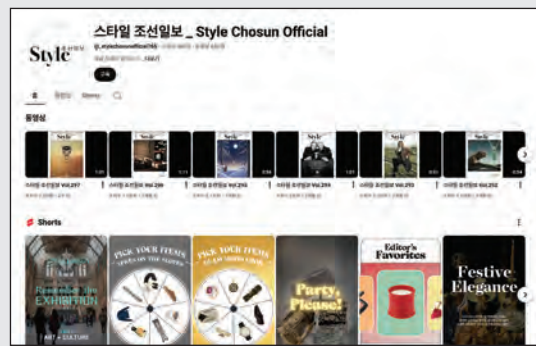


Special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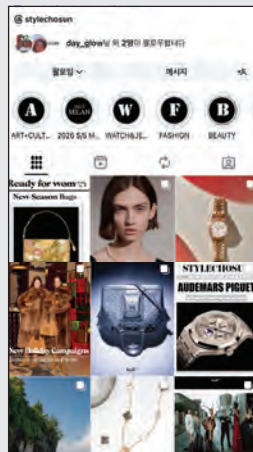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stylechosun.co.kr

Style Chosun ———
Universe



유튜브
www.youtube.com/@_stylechosunofficial765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tylechosun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stylechosun

stylechosun.com



INSIGHT

Spirit of Crush

코코 크러쉬는 가브리엘 샤넬이 애호했던 입체적인 펠팅 모티브를 주얼리로 구현해 풍성한 실루엣이 특징인 컬렉션이다. 2015년 이후 오늘날까지 샤넬 파인 주얼리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시즌 그 미학을 가장 잘 담아낸 신제품, 코코 크러쉬 소트 네크리스는 또렷한 라인과 절제된 곡선을 통해 코코 크러쉬 특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슬라이딩 잠금장치를 활용해 초커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으며, 느슨하게 착용하면 롱 네크리스로도 활용 가능해 우아함을 더한다. 베이지 골드, 옐로 골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버전 등 다양한 소재로 선보인다. 문의 080-805-9628

손에 피어난 고귀한 숨결

2014년 처음 출시된 후 단숨에 메종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 주얼리 솔리테어 컬렉션의 부클레 솔리테어(Boucle Solitaire) 링. 메종은 올해 리본 모티브를 재조명하며 다시 한번 선보인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 링의 디자인은 비대칭적인 세이프와 다이아몬드 세팅을 통해 리본의 유연한 움직임을 재현했다. 물결과도 같은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는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감싸며 찬란하게 빛난다. 리본을 하나로 묶는 매듭을 연상시키는 센터 다이아몬드는 하이 주얼리다운 품격을 자아낸다. 문의 1877-4128

Small Pleasures

작지만 확실한 존재감. (위부터 차례로) 포플린과 메탈 소재의 조합의 플라워 브로치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촉촉한 라이스톤 세팅으로 주얼리처럼 빛을 더한 라이스톤 브로치 2백57만원대 **돌체앤가바나**. 문의 02-3442-6888. 하트를 연상시키는 에덴 브로치 61만9천원대 **이자벨마랑**. 문의 02-516-3737. 가벼운 실크 폰치 소재로 은은한 분위기를 더하는 브로치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간결한 보 디자인에 메탈 광택으로 포인트를 준 메탈 보 브로치 가격 미정 **마우미우**. 문의 02-541-7443.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The New Luxe

로로피아나가 2026 S/S 시즌, 시그니처 백 '엑스트라(Extra)'를 재해석한 '엑스트라 소프트 백(Extra Softy Bag)'을 선보인다. 위시® 캐시 더블 웨브론(Wish® Cash Double Chevron) 패브릭 등 유연함을 극대화한 소재 구성에 가죽 키 링, 골드 톤 패들록, 달착 가능한 스트랩 디테일을 더해 절제된 포인트를 완성했다. 신제품은 L33-L44,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되며, 총 네 가지 컬러로 전개한다. 전 세계 로로피아나 부티크 및 온라인(loropiana.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200-7799

Honorable Victory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오메가는 새로운 공식 타임키퍼 캠페인과 함께 특별 제작한 씨마스터 다이아버 300M을 공개했다. 이번 타임피스에는 지름 43.5mm 케이스에 화이트 세라믹 다이얼을 조합했으며, 다이얼에는 '밀라노-코르티나 2026' 엠블럼에서 영감받은 손가락 자국 패턴의 조각 서리 무늬를 새겼다. 로동 도금 처리한 핸즈와 인덱스에는 시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이트 슈퍼루미노바®를 채웠고, 중앙 초침에는 대회 로고 컬러와 동일한 은은한 블루 그레데이션을 적용했다. 통합형 화이트 라바 스트랩과 티타늄 버클을 갖춘 이 특별한 씨마스터 다이아버 300M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라버 8806으로 구동해 약 5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3467-8632

Drive with Fragrance

차 안에 새로운 분위기를 더해줄 차량용 방향제 5.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딤티크 차량용 방향제 세트 (베이 케이스 & 리필용 캡슐)** 블랙커런트와 장미 향으로 상쾌하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16만6천원대. 문의 02-3446-7464 **아쿠아 디 파르마 차량용 디퓨저 케이스 옐로 & 차량용 가트리지 본도르노** 알코올 없이 특수 폴리머 비즈에 향을 담아 캡슐화한 것이 특징. 케이스 26만원대, 리필 7만5천원대. 문의 02-6905-3568 **조 말론 런던 우드 세이지 앤 씨 솔트 카 디퓨저** 암브레드 시드와 시 솔트, 세이지의 조합로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낸다. 15만4천원대. 문의 1644-3753. **템버린즈 카 디퓨저 카모** 달콤한 캐머미일과 쓸쓸한 클라리세이지 허브 향의 오묘하고 중독성 있는 향을 선사한다. 8g 8만5천원대. 문의 1644-1246 **오센트 씨셀 차량용 방향제** 조개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특징. 5만8천원대. 문의 1899-9949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Heritage in Motion

몽클레르가 오는 2월 6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서 브라질 올림픽위원회의 개·폐회식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브라질 대표 팀 유니폼을 선보이며 약 60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다. 브랜드 엠베서더이자 월드컵 챔피언인 루카스 피니에로 브라텐과의 파트너십으로 공동 제작한 플래그십 레이스 수트는 기술력과 브라질 헤리티지, 몽클레르 특유의 스타일을 결합해 완성했다. 이번 올림픽 참여는 1954년 K2 원정 지원과 1968년 동계 올림픽 프랑스 대표 팀 유니폼 제작으로 이어진 브랜드 유산을 현재로 잇는 상징적 순간이다. 문의 0030-8321-0794

The Charm of a Bow

리본 클래식의 정수.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데일리룩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보우 백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아이코닉한 모노그램 디테일이 특징인 모노그램 실루엣 보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목이나 가방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라발리에르 33만원대 **셀린노**. 문의 1577-8841. 헤이스타일에 포인트를 주는 블랙 펄 새틴 보우 헤어클립 18만원대 **셀프 포트레이트**. 문의 02-6911-0836. 버건디 컬러의 나파 가죽에 리본 디테일을 매치한 펜디 아르코 1백만원대 **펜디**. 문의 080-343-9500.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캐스퍼 보스만스(Kasper Bosmans) 〈Peas, Pod〉

벨기에 출신의 1990년생 작가 캐스퍼 보스만스(Kasper Bosmans)의 국내 첫 개인전이 서울 청담동에 자리한 글래드스톤 갤러리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3월 14일까지). 동시대의 쿼터적 관점에서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파고드는 이번 전시 〈Peas, Pod〉에서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콩'이라는 반복적 모티브를 선보이는데, 이는 화강, 성장, 재생에 대한 은유로 작동한다고 한다. 브라질 출신의 작가 호세 레오닐손(José Leonilson)의 다채로운 페인팅 'Untitled'(1985)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모티브다. 캐스퍼 보스만스는 이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가지로 고정되거나 규정되지 않고 유연하게 변화하고 확장을 거듭해나가는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화화, 조각, 벽화를 포함한 다양한 형식을 아우르며 탐구한다. 쿼터 가족과 사적 기억에 뿌리를 둔 다층적 경험을 공감대를 끌어내는 서사와 문화를 풀어내는데, 여기서 민속 예술이나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티브 혹은 전통 기법을 자신만의 미감으로 활용하는 감각이 돋보인다. 예컨대 오랜 기간 전해 내려온 드로잉 기법인 '실버포인트(silverpoint)'를 활용하고, 참나무 또는 밤나무 패배에 채색하는 작업을 도입한 '레전드 페인팅(Legend Painting)' 연작이라든지, 콩 모티브를 다루되 키스 해링이나 제스퍼 존스 같은 20세기 거장들의 상징적 작품을 카메오 형식으로 삽입한 다른 회화 작업들이 있다. 또 동판 같은 금속 표면이 부식되면서 자연스러운 녹색을 띠게 하는 파티나를 손으로 브론즈에 입히는 기법의 달인답게 고만의 개성이 묻어내는 브론즈 작업도 여러 점 소개한다. 한편 벨기에 명품 브랜드 델보는 캐스퍼 보스만스와의 두 번째 협업 컬렉션 (13점)을 2월 6일 더현대 서울 팝업 스토어에서 독점 공개한다. 글 **고성연**



은은한 광택의
실크 새틴 소재
스카프 가격
미정 **샤넬**.



은은한 퍼플
다이얼과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컨스텔레이션
25mm 워치
1천5백만원대
오메가.



서로를 잇는
2개의 링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더한 포멜라토
투게더(Pomellato
Together) 이어링
5백10만원 **포멜라토**.



금굴과 화이트
커런트, 딸기와
작약 향에 핑크
자몽과 만다린
노트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벨에포크
로제 2014.
750ml, 60만원대
**페리에 주에
by 페르노리카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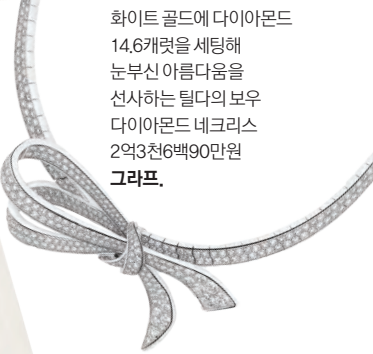
친절, 진정성, 인내, 헌신의
의미를 담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1.29캐럿
다이아몬드 세팅 울루
크라온 인게이지먼트 링
가격 미정 **키린**.



실크 혼방 새틴에
메탈 체인을 더한
로즈 비비에 클러치
5백78만원
로저 비비에.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14.6캐럿을 세팅해
눈부신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틸다의 보우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2억3천6백90만원
그라프.



18K 로즈 골드에
머더오브펠과 오닉스로
완성한 럭키 애니멀 도브
클립 1천80만원
반클리프 아펠.



아코야 진주를 리본 장식에 세팅해 러블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프린세스 티아라 가격 미정 **타사키**.



내구성이
좋은 알루미늄
소재에 탈착식
레더 스트랩을
매치한 크로스
보디백, 21.5×
13×7cm,
2백30만원
리모와.



피오니와 코코아
파우더에 파츨리와
리치 노트가 대비를
이루는 모노그램
아트라프 레브
(Attrape-Rêves).
100ml,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반짝이는 크
리스탈 장식이
돋보이는 사에다
100 새틴 펌프스
3백6만9천원 **지미추**.

에디터 신정영 스타일리스트 이승민

for her Selection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을 위한 플로럴 드레스와 빛나는 위치 & 주얼리,
그리고 셀러브레이팅을 기념할 샴페인 등 아름다운 신부를 위한 우아한 웨딩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YOUNG, YOON JIYOUNG**



Artistry of Time

작은 위치 다이얼에 수놓은 로맨틱한 아름다움.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불가리 디바스 드림 위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지름 33mm 로즈 골드 케이스에 레드 우드 소재 디테일로 마감한 다이얼을 매치했다.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4천2백만원. 문의 02-6105-2120 디올 타임피스 디올 그랑 발 타임피스 지름 33mm 스틸 소재 케이스와 7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로 완성했다. 머더오벌 다이얼에 핑크 사파이어, 차보라이트 가닛, 화이트 골드, 플래티넘 등으로 장식했으며 데님 브레이슬릿으로 마무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글라슈테 오리지널 세나토 마이센 탄생 180주년을 기념해 도자기 브랜드 마이센 포슬린과의 협업으로 완성한 리미티드 에디션. 청자를 연상시키는 약 40mm의 그린 셀라돈(Celadon) 다이얼에 18세기 로코코 장식에서 유래한 잎사귀 모양을 수놓아 동서양의 미를 고루 느낄 수 있다. 3천8백만원대. 문의 02-3467-6426 반클리프 아펠 레이디 아펠 폰데자모르 위치 파리의 거리와 사랑하는 두 연인의 러브 스토리를 담았다. 다이얼 안의 디테일하고 서정적인 장면은 그리자유 에나멜 기술로 완성했으며, 오토마톤 무브먼트 기술로 정오와 자정에 두 연인이 만나 키스를 하도록 설계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브레게 레인 드 네이플 데이 & 나이트 8999 베젤과 케이스 밴드에 무려 1백31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플랜지에는 7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다이얼에는 1백4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의 정점을 이룬다. 12시 방향 다이얼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밸런스 휠을 중심으로 달과 별, 구름까지, 한 폭의 그림을 그려 넣은 듯한 아트 위치 가격 미정. 문의 02-6905-3571 오메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GMT 기능을 갖춘 지름 43mm의 위치로 폴라싱 처리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티크 스트라이프가 특징인 태양광 패턴의 블루 다이얼을 매치했다. 중앙엔 레이저 가공을 통해 완성한 푸른 바다와 양각 처리한 대륙 디테일이 자리한다.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38로 작동한다. 1천5백만원대. 문의 02-3467-8632 위블로 빅뱅 원 클릭 킹 골드 레인보우 1백30개의 컬러 젼스톤을 세팅한 18K 킹 골드 케이스에 베젤에는 42개의 바게트 컷 컬러 젼스톤을, 다이얼에는 2백32개의 컬러 젼스톤을 세팅해 아트 피스 같은 무지개 빛깔을 선사한다. HUB1120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1억원대. 문의 02-540-1356 에디터 성정민



가볍고 견고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에 확장 가능한 수납공간과 4개의 스피너 휠을 갖춘 19 디그리 컬렉션 29인치 캐리어, 51×76×28cm, 1백55만원 **투미**.



브라스와 유리로 입체적인 부케 실루엣을 표현한 라인스톤 브로치 2백57만원 **돌체앤가바나**.

시그너처 골드 코팅 클립 및 피팅으로 완성한 마이스터스틱 캘리그래피 솔리테어 셀라돈 데그라데 만년필 4백5만원 **몽블랑**.



18K 옐로 및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0.51캐럿을 세팅한 카트로 레디언트 에디션 링 1천8백만원대 **부쉐론**.

실크 소재 보타이 가격 미정 **키톤**. 클래식한 분위기를 배가하는 벨벳 수트와 실크 셔츠 가격 미정 **에르메스**.



for him Selection

버진 로드 끝에서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을 위해 클래식한 수트에 어울리는 백 & 슈즈부터 허니문을 위한 트레블 러기지까지 갖춰 품격을 더한 신랑 웨딩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MINYOUNG, YOONJIYOUNG



길게 뻗은 통형 실루엣, 정교한 편칭 다태일이 어우러진 레더 슬로팅 브로그 1백73만원 **툼 브라운**.

송아지 가죽 스웨이드에 메달 버클을 기본 스웨이드 벨트 70만원대 **탈프 로렌 퍼플 라벨**.



투명한 크리스탈 컵팅이 돋보이는 아코어 1841 글라스. 2잔 1set, 1백15만원 **바카라**.



아티스트 다카시 무라카미와 협업해 완성한 돔 페리뇽 빈티지 2015 스페셜 에디션. 750ml, 45만원대 **돔 페리뇽**.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T1 네로우 다이아몬드 힌지도 밴글 2천4백만원대 **티파니**.



브라스와 송아지가죽으로 구현한 말 실루엣에 스몰과 줄자, 태슬 디테일로 워트를 가미한 말 백 참 1백55만원 **디올 맨**.



선버스트 메테오 그레이 다이얼과 스틸 케이스, 패브릭 스트랩이 절제된 남성미를 완성하는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43mm 워치 1천8백63만원 **불랑팡**.



부드러운 나뭇 가지속 소재 보디와 양말을 감싸는 구조적인 플랩 실루엣이 돋보이는 허그 브리프케이스 3백80만원대 **페라가모**.

공예도 디자인까지 1887년 브랜드에

Fly Me to the Moon

모양도 컬러도 색도 브랜드마다 개성이 달라 보는 재미를 더하는 문패이즈 워치.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IWC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문패이즈** 심플한 18K 5N 골드 라운드 케이스에 미니멀한 다이얼, 슬림한 로마숫자 인덱스, 니룟임 모양 핸즈가 조화를 이루는 군더더기 없는 클래식 문패이즈 워치. 셀프 와인딩 35800 칼리버로 작동하며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2천9백70만원. 문의 1877-4315 **에르메스 워치 아썬 뽀띠 룬** 지름 38mm 스틸 케이스에 센터 서클과 바깥의 칼라 그레데이션이 매력적이며, 개기월식을 표현한 듯 자라난 다이아몬드 세팅과 10시 방향에 위치한 문패이즈가 유니크함을 전한다. 매뉴팩처 무브먼트 H1837로 구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브레게 클래식 문패이즈 7787** 지름 39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12시 방향 문패이즈뿐 아니라 3시 방향 파워 리저브 컴플리케이션까지 갖춘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 9시 방향 서클과 브레게 문패이즈만의 독특한 달 모습이 아이코닉한 매력을 더한다. 5천3백만원대. 문의 02-6905-3571 **피아제 알티플라노 문패이즈** 지름 36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총 약 2.36캐럿 다이아몬드 52개를 세팅하고, 다이얼에는 23개의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머더오브펠을 세팅해 우아하게 완성했다. 다이얼 모양과 유사한 6시 방향의 문패이즈가 특징. 8천9백만원. 문의 1877-4275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셀프와인딩 퍼페추얼 캘린더** 작년 초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모델을 미니마이징했다. 지름 38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독특한 음각 느낌을 주는 PVD 그랑드 테퍼시 다이얼, 크라운만으로 모든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올인원 기능까지 그대로 갖춰 놀라움을 자아낸다. 가격 미정. 문의 02-543-2999 **바쉐론 콘스탄틴 패트리모니 문패이즈 앤 레트로그레이드 데이** 브랜드의 클래식함과 순수함이 돋보이는 타임피스로 1백22년 동안 달의 주기를 별도의 조정 없이 표시할 수 있는 문패이즈와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인디케이션을 결합해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8천3백50만원. 문의 1877-4306 **불랑팡 레이디버드 컴플리트 캘린더** 지름 33.7mm 스틸 케이스에 1줄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을 매치하고 머더오브펠 다이얼, 로마숫자와 다이아몬드를 번갈아 세팅한 인덱스, 특유의 표정의 문패이즈까지, 우아한 감성을 전하는 타임피스 4천6백8만원. 문의 02-3479-1833 에디터 **성정민**

타이중(Taichung) 이야기

대만의 ‘허리’ 도시는
어떻게 문화적 존재감을 키워가는가



잘 알려졌듯 한국과 대만은 근현대사의 주요 궤적에서 공통 분모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19세기 말부터 민족을 고달프게 했던 전쟁과 식민지 시절(일본의 지배), 종전 이후 가파른 경제성장, 민주화 과정에서의 시련 등 굵직한 타임라인을 보면 놀랄 정도로 닮았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와 도시, 개인이든 저마다의 소우주를 품고 있듯, 그 속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개성이 넘실댄다. 전체하지 않는 태도와 외양, 허세 깃든 낭비를 줄이는 검소함과 내실을 다지는 문화, 자유롭고 진보적인 정신을 추구하는 지적 토양..., 중부의 ‘허브’ 역할을 하는 타이중(Taichung)은 ‘대만’ 하면 떠오르는 인상의 주요 요소를 갖췄으면서도 ‘중용의 미학’이 두드러지는 도시다. 산업 성장과 더불어 정책적 문화 인프라까지 가세해 어느덧 ‘글로벌 문화 도시’로 차근차근 성장해나가고 있다. 문화 도시로의 변화상에 맞물린 타이중의 발자취가 궁금해졌다.



1

태평양 서쪽 끝자락, 일본열도와 필리핀 사이에 자리한 작은 섬나라 대만. 면적은 한반도의 6분의 1 수준(약 36,197km², 대만 행정원 기준)으로 경상도보다 좀 큰 정도인데, 수도인 타이베이 같은 도시의 경계를 조금만 벗어나면 ‘보물섬(寶島)’이라는 수식어를 증명하듯 수려하고 다채로운 자연환경이 펼쳐진다. 해발 3,000m 이상의 고산이 2백 개가 넘는 정도로 인상적인 산악 지형을 품고 있고, ‘본토’ 역할을 하는 타이완(대만)섬을 위시해 1백68개의 섬이 해안 영토를 이루고 있다. 16세기 대항해시대의 포르투갈인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다 빼어난 풍광에 반해 ‘일하 포모사(Ilha Formosa, 아름다운 섬이란 뜻)’라 부른 걸 계기로, 지금도 대만에는 ‘포모사’라는 별칭이 따라붙는다. 필자도 대다수 여행자들처럼 북쪽에 있는 타이베이를 첫 발판으로 대만과 안면을 뒀는데, 그 뒤로 살짝 ‘도장 깨기’ 느낌으로 차근차근 도시들을 탐색해오고 있다. 주로 고속열차(HSR) 노선에서 더 남쪽에 자리한 주요 도시, 그러니까 타이베이 → 타이중 → 타이난 → 가오슝(쑤잉역) 등을 목록에 더해가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아마도 관광객들한테는 1순위로 여겨지지



2



3



4

않을 법한 중부 지역의 도시 타이중을 유독 자주 찾게 됐는데, 방문 횟수를 열주 세어보면 최근 몇 년 사이 예닐곱 번에 이르렀다. 대만 현지인들도 “뭘, 타이베이냐 가오슝이 아니라 타이중을 그렇게 많이 찾았다고?”라며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재차 묻곤 한다. 사실 각각의 체류 기간 자체는 길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꽤 자주 찾은 셈이 됐는데, 우연과 필연으로 엮인 수차례 여정의 배경에는 문화 예술이라는 공통분모가 깔려 있다. 도시의 인상을 좌우하는 크고 작은 문화 공간이 꾸준히 생기면서 시민뿐 아니라 타지인에게도 의미 있는 존재감을 쌓아간 이력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대만 지도에서 볼 수 있듯 ‘중간에 자리해 여러 도시를 오갈 때 편히 들르게 되는 타이중의 지리적 위치 덕분이기도 했던 것 같다. 흥미롭게도 사회·지리·정치·경제·문화 등 여러모로 ‘중간 지대’로서의 면면을 지닌 타이중은 21세기 들어 ‘제2의 도시’이자 문화적 거점으로 부상해 온 도시 사례다.

타이중 vs 가오슝, 제2의 도시는 어디?

동쪽은 구릉, 서쪽은 고원으로 이뤄지며 강과 개울이 흐르는,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닌 대만 중부의 심장 같은 도시 타이중. 특히 일치시대에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상업 중심지로 발전했다. 굳이 짝 맞추기를 하자면, 이 나라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의 중심축인 타이베이는 서울, 남부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가오슝은 부산을 자연스레 연상시키는데, 타이중은 딱히 조합할 만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고속철 기준으로 타이베이에서 40~50분 소요되는 거리로, 중부 내륙권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대전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무게감은 확실히 다르다. 대만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인구(2백86만여 명)를 지닌 직할시로 교통과

5

물류의 요충지이며 농업은 물론 정밀기계 같은 제조업, 경공업 등 다각화된 산업구조를 지녔고, 중소기업이 많이 포진한 도시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중부 경제권을 이끄는 ‘균형 잡힌’ 도시. 그래서 공공연히 ‘대만 제2의 도시’라는 수식어를 내걸기도 한다. 하지만 다수의 현지 지인들은 “내 마음의 제2 도시는 여전히 가오슝”이라고 말한다. 물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순위는 바뀌기 마련이지만, 실제로 대만의 도시 지형은 2010년 말 거국적으로 단행한 행정 개편에 따라 변화한 것도 사실이다. 넓은 대로와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산업 도시인 타이중시와 길게 펼쳐진 초록의 평야를 거느린 타이중현을 통합하면서 가오슝(2백70만 명대)을 제치고 제2 도시의 위상을 거머쥐게 되어서다. 그런데 첫 방문 시(2023년) 이 점을 몰랐던 여행자로서 필자의 뇌리에 타이중은 온통 녹색으로 둘러싸인 드넓은 풍경의 중심에 첨단 인프라와 문화가 발달한 존재감 남치는 커다란 도시의 이미지부터 새겨



5

1 1917년 세운 타이중 기차역(구역사)의 외관. 2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로 유명한 이오잉페이(I. M. Pei)와 대만의 저명한 건축가 천치관(陳其寬)이 설계한 예배당 루스 채플(Luce Chapel)의 파사드(1963년 완공). 대만 최초의 사립 종합대학으로 선교사들이 설립한 타이중의 명문대 동해대학교 캠퍼스에 있다. 3 타이중의 아시아대학교 캠퍼스에 자리한 아시아 현대미술관 외관. 건축 거장 안도 다다도가 이끈 설계로 2013년 개관했다. 4 2024년 봄 아시아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중국의 추상화가 왕화이칭(1944~) 개인전. 5 1966년 지은 제4 신원협동조합을 리모델링해 조성한(2013년) 금고 카페. 6, 7 타이중 기차역 근처의 디지털 송이자 카페 미야하라 안과병원(宮原眼科). 실제로 1927년 안과병원으로 설립됐다. 8 타이중의 명소 우펑 일가화원의 상단에 위치한 이푸(Yipu) 저택. ※ 1~8 사진 고성연

졌다. 타이중 산악 지대의 온천 마을 구판, 그리고 주로 난터우현에 속하지만 타이중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아름다운 산상 호수 르웨탄(日月潭)부터 찾았기 때문이다.

역사의 굴곡 속 뿌리 내린 문화적 토양

분명 인구, 경제력을 갖춘 문화 중심지로서 타이중의 부상은 전략적 정책의 소산이기도 하다. 첫 단추는 일치 시대인 20세기 전반기에 끼워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일본은 타이베이(총독부), 타이난(옛 수도) 사이의 중간 거점인 타이중(옛 이름 다퉈)에서 근대화 사업을 시작했다. 1903년에 타이중 공원이 조성되었고, 1917년에 르네상스풍의 타이중 기차역이, 그리고 1924년

에는 타이중 시청이 완공되었다(타이중시는 공식적으로 1920년 설립). 경제는 번영을 누렸지만 자원은 일본 전쟁에 쓰였던 강철기 시절에도 문화 도시 역할을 했다. ‘대만 의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린셴탕(林獻堂, 1881~1956)을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은 문화적 자각과 민족주의의 불을 지피면서, 1927년에는 문화 운동 본부를 타이중으로 옮겼다. 린셴탕은 대만인이려면 누구나 아는 명문가 린(Lin)씨 집안의 후손이다. 타이중의 명소로 유명한 우펑(Wufeng) 일가화원에 가면 이 가문이 청나라 시대부터 지은 대규모 전통 가옥과 정원, 오보제 등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다만 운영 주체가 여럿이라 표도 여러 장 사야 하므로 목적에 따른 동선을 미리 면밀



6



7



8



을 거둬하는 스왑 지역으로의 중요성도 작음했다고 여겨진다. 1999년 지진으로 임시 폐쇄되었다가 2004년 재개관한 NTMoFA는 글로벌 무대에서 명함을 내밀 만한 작가들과 비엔날레 같은 국제 미술전이 열리는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타이중시와 현이 통합된 이후인 2014년에는 공연 예술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시설로 역시 국립인 타이중 국가가극원(이하 NTT)도 들어섰다. 건축계 노벨상으로 통하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일본의 건축 거장 이토 토요(Toyo Ito)가 설계한 NTT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곡선형 벽 구조만으로 설계된, 파사드의 와인잔/병 모양 패턴이 밤이면 더욱 매력적인 독특한 건축미를 뽐낸다. 전통 경극(오페라)부터 민속음악, 클래식, 무용, 아트 & 테크 등 다양한 공연 스펙트럼을 지닌 시민들의 전당이다. 지난 11월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이탈리아 오케스트라의 아시아 순회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랜드마크 대열에 합류한 '뮤지엄브러리'

내실도 외형도 알찬 문화 도시로 나아가는 타이중의 여정은 점점 더 활발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중순 개관한 타이중 그린 뮤지엄브러리(Taichung Green Museumbrary)는 이 같은 행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문화적 자산. 역시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 거장 듀오인 세지마 가즈요와 니시자와 료에가 이끄는 건축 스튜디오 SANAA에서 설계를 맡았는데, 2개의 공간, 하나의 비전이라는 구조처럼 '공원 속 도서관+미술관'이라는 개념을 품고 있다. 57,996㎡(약 1만7천5백 평)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8개 덩어리로 이뤄진 뮤지엄브러리는 7층짜리 도서관, 6층짜리 현대미술관인 타이중 미술관(이하 TcAM)을 두고 있고, 그 사이에는 공통의 로비(야)의 공원으로도 통하는) 같은 역할을 하는 열린 공간이 분수를 머금은 채 펼쳐져 있다. 타이중시에

1 1988년 문을 연 국립 타이완 미술관(NTMoFA). 대만의 건축가 귀지(郭基)가 설계를 맡았고, 지진 피해로 보수·확장 작업을 했다. 2 NTMoFA에서 진행 중인(오는 3월 1일까지) 2025 타이완 아트 비엔날레 〈Black Water〉에서 선보인 왕딩예(王鼎曜) 작가의 영상 작업 '三留'(2019). 3 NTMoFA는 조각 공원을 포함해 10ha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콘트리트 벽 중간에 놓인 작품은 대만 작가 리광위(李光裕)의 영상작인 조각 작품 'Concentration'(1994). 4 2016년 문을 연 타이중 국가가극원(NTT)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에 3개의 공연장이 있다. 5 NTT 내부 공간. 누구나 내부에 들어와 디자인을 만끽할 수 있다. 6 지난해 말 NTT에서 열린 〈The Making of Berlin〉공연의 레퍼런스 이미지. 영화와 연극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는 벨기에 다큐멘터리 연극 그룹 베를린(BERLIN)이 선보인 작품으로 나치 시절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둘러싼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든다.

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후퇴한 국민당은 1949년 계엄 독재 체제를 구축했는데, 이듬해 타이중을 특별행정구로 지정했고, 이는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로 작용했다. 문화적 도약의 새로운 계기는 1980년대 후반에야 찾아왔다. 40년 가까이(38년 1개월 25일) 지속됐던 계엄령이 1987년 해제되고 난 뒤 국가주의는 해제되기 시작했고, 국어 정책(정통성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한자의 적통인 변체자

를 표준으로 삼고 엄격히 통제했다)도 점차 느슨해졌다. 대만은 사실 원주민이 6천여 년 전부터 살았던, 언어가 47종이나 되는 정글 같은 문화를 지니지 않았던가. 다양한 문화를 통한 정체성 찾기에 나서는 과정에서 타이베이에 집중된 문화 인프라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국립급 미술관을 중부의 거점 도시인 타이중에 열었다(1988년). 현재도 현대미술관으로는 유일한 '국립인 국립 타이완 미술관(이하 NTMoFA)이다. 타이중은 전통적으로 국민당과 민진당이 접전

NTT 타이중 국가가극원



서 큰 예산(한화 2천5백억원 규모)을 투입해 빚어낸 이 복합 문화 공간은 시 소장 서적과 미술품을 옮겨 와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플랫폼이다. 특히 TcAM은 아무래도 국립인 만큼 대만의 현대미술과 해외 미술을 균형감 있게 아우르는 데 초점을 맞춘 NTMoFA에 비해 다국적 작가들을 내세울 수준 높은 기획전을 꾸리면서도 중부의 문화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행보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층고가 무려 27m에 이르는 공간에 나선형 경사로가 감싸는 시원한 미술관 아트리움에 놓인 커미션 작품은 양혜규 작가의 대형 설치 작업 '유동 봉헌 - 삼합 나무 그늘(Liquid Votive - Tree Shade Triad)'(2025)인데, 일명 '우주나무' 시리즈로 불리는 이 작업 역시 양 작가가 타이중의 숲과 절 등을 몸소 방문하는 현지 답사를 바탕으로 짙은 녹색을 주된 색상으로 삼아 고목의 문화적 상징성과 자연을 담았다.

이 인상적인 플랫폼을 이끌게 된 TcAM의 초대 관장 라이이신(Yi-Hsin Lai, b. 1980)은 독립 큐레이터 출신으로 자이현의 시립미술관 관장을 거쳐 40대에 새 랜드마크의 수장이 됐는데, '파격적 발탁'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대만의 미술관 생태계도 관장 자리에 있어서는 자못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와서다. 알고 보니, 필자는 그녀가 2019년 MOCA 타이베이의 한 전시에 기획자(독립 큐레이터)로 참여했을 때 미술관에 들렀다가 스쳐 지나간 인연이 있었다. 당시 형식도, 메시지도 출중한 전시를 인상 깊게 봤는데, 누군가 대략 이렇게 소개했다. "니콜(라이신의 영어 이름)은 곧 지역의 미술관을 이끌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이례적인 발탁이죠." 얼굴을 잊고 있었는데, 현지에서 다시 만난 니콜을 보자 기억이 발동해 반가움이 앞섰다. "꽤 화제가 됐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학계 출신이 아닌 인물을 채용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저는 마흔도 되지 않았죠." 그녀는 기획자로서의 평가가 좋았던 데다 자격 요건에 필요한 박사 학위를 지니고 있었고, 마침 자이현 출신이기도 했으니 운과 실력이 맞아떨어진 사례라 할 수 있다.

라이이신 관장이 꾸리는 TcAM 팀도 젊고 열정이 인상적인 플랫폼을 이끌게 된 TcAM의 초대 관장 라이이신(Yi-Hsin Lai, b. 1980)은 독립 큐레이터 출신으로 자이현의 시립미술관 관장을 거쳐 40대에 새 랜드마크의 수장이 됐는데, '파격적 발탁'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대만의 미술관 생태계도 관장 자리에 있어서는 자못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와서다. 알고 보니, 필자는 그녀가 2019년 MOCA 타이베이의 한 전시에 기획자(독립 큐레이터)로 참여했을 때 미술관에 들렀다가 스쳐 지나간 인연이 있었다. 당시 형식도, 메시지도 출중한 전시를 인상 깊게 봤는데, 누군가 대략 이렇게 소개했다. "니콜(라이신의 영어 이름)은 곧 지역의 미술관을 이끌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이례적인 발탁이죠." 얼굴을 잊고 있었는데, 현지에서 다시 만난 니콜을 보자 기억이 발동해 반가움이 앞섰다. "꽤 화제가 됐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학계 출신이 아닌 인물을 채용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저는 마흔도 되지 않았죠." 그녀는 기획자로서의 평가가 좋았던 데다 자격 요건에 필요한 박사 학위를 지니고 있었고, 마침 자이현 출신이기도 했으니 운과 실력이 맞아떨어진 사례라 할 수 있다.

라이이신 관장이 꾸리는 TcAM 팀도 젊고 열정이 인상적인 플랫폼을 이끌게 된 TcAM의 초대 관장 라이이신(Yi-Hsin Lai, b. 1980)은 독립 큐레이터 출신으로 자이현의 시립미술관 관장을 거쳐 40대에 새 랜드마크의 수장이 됐는데, '파격적 발탁'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대만의 미술관 생태계도 관장 자리에 있어서는 자못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와서다. 알고 보니, 필자는 그녀가 2019년 MOCA 타이베이의 한 전시에 기획자(독립 큐레이터)로 참여했을 때 미술관에 들렀다가 스쳐 지나간 인연이 있었다. 당시 형식도, 메시지도 출중한 전시를 인상 깊게 봤는데, 누군가 대략 이렇게 소개했다. "니콜(라이신의 영어 이름)은 곧 지역의 미술관을 이끌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이례적인 발탁이죠." 얼굴을 잊고 있었는데, 현지에서 다시 만난 니콜을 보자 기억이 발동해 반가움이 앞섰다. "꽤 화제가 됐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학계 출신이 아닌 인물을 채용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저는 마흔도 되지 않았죠." 그녀는 기획자로서의 평가가 좋았던 데다 자격 요건에 필요한 박사 학위를 지니고 있었고, 마침 자이현 출신이기도 했으니 운과 실력이 맞아떨어진 사례라 할 수 있다.

타이중 미술관

TcAM



적 전시의 가능성을 열어줬기에 더욱 그렇다. 작은 비엔날레급이었던 TcAM의 개관전 〈모든 존재의 부름: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요〉에서 마주한 한국 작가 문승현의 작업은 그런 기대에 설렘을 보냈다. 뇌성마비가 있는 문 작가가 미술관을 무대로 건축적이고 퍼포먼스적인 차원을 탐구하는 커미션 영상 작업 '얇고 투명한 것들에 대하여'를 선보이며 함께 소개한 시가 전해주는 작은 올림은 우리의 발견을 여전히 미술관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의 소중한 이유가 아닐는지. 글 고정현

그러나 우리가 닿은 곳은
말들(words)이 잠드는 곳
다시 우리의 자취가 사라져도
슬프지 않은 새벽으로 돌아갈 때
나는 이어져 있는 꿈에 망설여

얇고 말간 눈동자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우리를 이끈다면
내 몸을 울리는 소리는 옛날
한 처음부터 그랬을 마음이지
그래서 나는 물속처럼 걷고 해엄쳐

문승현, '얇고 투명한 것에 대하여'
(On Thin and Transparent Things)' 중에서



Big Time for Rebirth

지난해 빅뱅 탄생 20주년을 맞이한 위블로는 올해도 변함없이 끝없는 혁신과 도약을 향해 나아간다. 이번 LVMH 워치 위크에서는 한층 진화한 빅뱅 오리지널과 스피릿 오브 빅뱅, 특별함을 담은 빅뱅 투르비옹 스페셜 에디션까지, 컬렉션 전반을 아우르는 신작을 알차게 선보였다. 세심한 마감과 유니크한 디테일, 감각적인 색채를 더해 워치 애호가들에게 행복한 고민거리를 안긴다.



빅뱅 오리지널 유니코, 20년의 시간으로 완성되다

지난 2025년, 빅뱅은 출시 20주년을 맞아 역사와 유산을 기념했다. 그리고 2026년, 다시 빅뱅의 기원으로 돌아가 '빅뱅 오리지널 유니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LVMH 워치 위크에서 공개된 이 모델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위블로의 혁신과 도전, 끊임없는 재창조, 그리고 탁월한 워치메이킹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다. 위블로는 빅뱅 오리지널의 초기 디자인을 기리기 위해 많은 기술적, 디자인적 준비를 거쳤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내·외부 전반에 걸친 정교한 업그레이드다. 무브먼트는 위블로가 100% 자체 개발·제조한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유니코를 새롭게 탑재했다. 유니코

무브먼트는 다섯 가지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칼럼 휠과 듀얼 클러치 구조, 레이어드 방식의 설계, 최적화된 기어 트레인, 그리고 H형 오픈 워크 스켈레톤 텅스텐 로터를 하나로 통합한 위블로 엔지니어링의 결정체라 할 만하다. 케이스는 기존 41mm와 44mm가 지녔던 착용감과 비율의 장점을 모두 살린 43mm 사이즈로 새롭게 다듬어, 한층 이상적인 균형을 이룬다. 표면 마감은 더욱 정교하고 부드러워졌으며, 곡선형 러그와 러버 코팅 크라운, 위블로 특유의 러버 인서트를 적용한 직사각형 푸셔를 더해 인체 공학적 편안함을 완성했다. 다이얼은 카본 패턴 효과와 볼륨감 있는 카운터, 톤 온 톤 흐로를 통해 깊이감 있는 입체적 인상을 전한다. 베젤 위 6개의 비정렬 스크루와 시그너처 러그, 멀티 레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케이스와 베젤, 러그까지 블랙 세라믹으로 완성한 빅뱅 오리지널 유니코 블랙 매직, 티타늄 케이스에 블랙 세라믹 베젤을 매치한 빅뱅 오리지널 유니코 티타늄 세라믹, 18K 킹 골드와 블랙 세라믹으로 완성한 빅뱅 오리지널 유니코 킹 골드 세라믹.

이어 구조는 여전히 빅뱅 오리지널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여기에 다양한 소재의 조합과 수직 브러싱, 폴리시 마감이 만들어내는 질감의 대비 역시 위블로다운 존재감을 이어간다. 스트랩은 원 클릭 시스템을 적용해 손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통합했다. 소재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에 걸맞게, 위블로는 세라믹, 티타늄, 킹 골드를 자유롭게 활용해 네 가지 버전을 선보인다. 블랙 세라믹만으로 완성한 블랙 매직, 경량성을 살린 티타늄, 티타늄 케이스에 블랙 세라믹을 조합한 티타늄 세라믹, 그리고 18K 킹 골드 케이스와 블랙 세라믹 베젤을 매치한 킹 골드 세라믹까지. 각 모델은 소재 고유의 성격을 극대화하며, 빅뱅 오리지널 유니코의 조형미를 서로 다른 해석으로 풀어낸다.



선명한 고감도의 미네랄 색감, 쿨 블루
컬러 스펙트럼을 확장해온 '컬러 장인' 위블로가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색은 '쿨 블루'다. 그레이와 블랙, 블루를 절묘하게 조율해 완성한 이 컬러는 완전한 블루도, 민트도 아닌 독창적인 뉘앙스를 지닌다. 스톱 톤을 연상시키는 깊이와 미네랄의 질감을 담아, 신비롭고 절제된 매력을 은은하게 발산한다. 위블로는 이 쿨 블루를 네 가지 모델에 적용했다. 43mm 빅뱅 오리지널 유니코, 42mm 스피릿 오브 빅뱅, 빅뱅 원 클릭 다이아몬드, 그리고 스피릿 오브 빅뱅 다이아몬드다. 빅뱅 오리지널 유니코와 스피릿 오브 빅뱅 모델에는 처음으로 카본 파이버 패턴에서 영감을 받은 기하학적 솔리드 다이얼을 적용했다. 다이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틴 파니시드와 폴리시드 사각형이 교차하며 컬러 차트를 엮은 듯한 구조를 이루고, 그 결과 3D 효과를 보는 듯한 깊이감을 선사한다. 빅뱅 오리지널 유니코는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춘 유니코 매뉴팩처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로 구동하며, 스피릿 오브 빅뱅은 5Hz(36,000vph)로 진동하는 고주파 HUB4700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두 모델은 티타늄 케이스와 러버 스트랩, 원클릭 교체 시스템, 티타늄 디플로이먼트 버클, 그리고 기능적 목적에 따라 비정렬로 배치한 6개의 H형 스크루까지, 모든 요소에서 공통된 DNA를 공유한다. 빅뱅 원 클릭 쿨 블루 다이아몬드와 스피릿 오브 빅뱅 쿨 블루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의 순수한 광채가 더해지며 쿨 블루 특유의 미네랄리티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베젤에는 각각 36개(0.76캐럿), 44개(0.70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모든 다이아몬드는 RJC(Responsible Jewellery Council)와 캄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 인증을 받은 것만 사용했다. 4C 기준에 따라 컬러는 F·G 등급, 투명도는 VVS, 컷은 엑셀런트 등급을 유지하며 윤리성과 품질 기준 모두를 충족한다. 스포티한 매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스틸과 블루 톤이 만들어내는 우아함과 섬세한 빛의 표정까지 놓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선례이 마감 다이얼은 각도에 따라 블루와 그레이가 미묘하게 변화하며, 쿨 블루 특유의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드러낸다.



1 스피릿 오브 빅뱅 쿨 블루의 디테일.
2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피릿 오브 빅뱅 쿨 블루 다이아몬드, 스피릿 오브 빅뱅 쿨 블루, 빅뱅 원 클릭 쿨 블루 다이아몬드, 빅뱅 오리지널 유니코 쿨 블루.
3 스피릿 오브 빅뱅의 케이스 백을 통해 HUB4700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4 빅뱅 오리지널 유니코 쿨 블루의 디테일.





1, 3 사무엘 로스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박병 유니코 SR_A. 2 케이스 측면에 'SR_A' 문구를 새겨 특별함을 더했다. 4 박병 유니코 SR_A 모델의 케이스 백을 통해 HUB1280 칼리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거장의 만남, 박병 유니코 SR_A

컬래버레이션의 명가답게 위블로는 이번에도 자신의 분야에서 확고한 궤적을 남긴 거장들과의 협업을 선보인다. 그중 하나가 영국 디자인어 사무엘 로스와 함께한 '박병 유니코 SR_A'다. 2019년, 사무엘 로스가 이끄는 디자인 팀 SR_A는 '위블로 디자인상'을 수상했고, 이듬해인 2020년부터 그는 위블로의 앰배서더로 합류했다. 2022년에는 최초의 협업 타임피스인 '박병 투르비용 카본 사무엘 로스'를 선보였고, 이후 세 가지 SR_A 투르비용 에디션으로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기존 SR_A 디자인에 위블로 매뉴팩처 유니코 무브먼트를 결합한 첫 번째 위치로, 사무엘 로스의 산업적 조형 언어와 위블로를 대표하는 크로노그래프 칼리버가 하나의 작품에서 만난 결과물이다. 특히 모노크롬 세라믹 외관과 새롭게 업데이트된 러버 스트랩을 적용해, 기존 SR_A 투르비용 에디션의 디자인 언어를 보다 정제된 방식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42mm 사이즈의 세틴 및 폴리시 마감 블랙 세라믹 케이스는 한층 더 미니멀하고 정제된 인상을 전한다. 이전 SR_A 조각 작품과 초기 한정판 위치에서 선보인 사무엘 로스의 시그니처 허니콤 패턴을 새롭게 구조화한 러버 스트랩에 적용해 가볍고 인체 공학적이면서도 건속적인 인상을 완성한다. 무광 블랙 스켈레톤 다이얼은 6시 방향의 칼럼 휠과 오픈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을 포함한 유니코 무

브먼트의 핵심 요소를 드러내며,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실리кон 이스케이프먼트, 72시간 파워 리저브를 갖춘 HUB1280 칼리버의 구조를 면밀히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SR_A 모델이 소규모 제작의 조각적 투르비용 구조에 집중했다면, 이번 박병 유니코 SR_A는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보다 실용적이고 다재다능한 형태로 풀어내며 박병 컬렉션 전체와의 연결성을 강화했다. 2백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이 모델은 세라믹 엔지니어링과 산업적 기하학, 그리고 유니코 무브먼트의 퍼포먼스를 결합한 결과물로, 위블로의 'The Art of Fusion' 철학과 사무엘 로스의 아이덴티티를 동시에 또렷하게 드러낸다.



역대 최고의 선수를 위한 박병 투르비용 노박 조코비치 GOAT 에디션

스포츠와 레전더리 선수를 위한 헌정 위치를 꾸준히 선보여온 위블로는 이번 LVMH 위치 워크에서 2개의 스포츠 테마 타임피스를 공개했다. 하나는 3년 만에 돌아온 UEFA 유로파 리그 티타늄 카본, 그리고 또 하나는 위블로의 앰배서더이자 역대 최고의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를 기념하는 '박병 투르비용 노박 조코비치 GOAT 에디션'이다. 노박 조코비치는 지난해 11월, 개인 통산 1백1번째 프로 토너먼트 우승을 달성하며 전설적인 커리어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더했다. 그랜드 슬램 24회 우승,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 세계 랭킹 1위 기간 4백28주라는 전무후무한 기록, 그리고 한 해를 세계 1위로 마감한 횡수만 8회에 달하는 그는 명실상부한 GOAT(Greatest of All Time)라 불릴 만한 존재다. 그를 위한 박병 투르비용 노박 조코비치 GOAT 에디션은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위치는 세 가지 코트에서 영감받은 블루·오렌지·그린 컬러로 구성된다. 72피스의 블루는 하드 코트 우승을, 21피스의 오렌지는 클레이 코트 우승을, 8피스의 그린은 잔디 코트 우승을 상징한다. 총 1백1피스에는 개별 번호가 부여되지만, 이는 한정 생산이 아니라 그의 커리어 성취를 따라 확장되는 개념적 시리즈다. 향후 새로운 타이틀이 추가될 경우, 해당 코트 컬러의 위치를 새롭게 데칼 예정이다. 케이스는 지름 44mm로, 라코스테 폴로셔츠와 헤드(HEAD) 테니스 라켓을 재현용해 특별히 개발한 복합 소재로 제작했다. 이 하이테크 경량 소재는 솔리드한 마블 패턴이 특징으로 마치 테니스 라켓을 보는 듯 독특한 재미를 선사한다. 이번 시리즈에 필요한 소재를 구현하기 위해 블루 폴로셔츠 12벌, 오렌지 4벌, 그린 2벌, 그리고 테니스 라켓 12자루를 사용했다. 그 결과, 그의 커리어와 정신이 물질적으로 스며든 상징적인 케이스가 완성되었다. 케이스 미들, 즉 컨테이너 부분에는 '티타플라스트(Titaplast)'라는 또 다른 첨단 소재를 적용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폴리머 중 하나로 알려진 이 소재는 티타늄에 준하는 기계적 성질을 띠며, 매우 정밀한 공차 가공이 가능하고, 탁월한 강도 대비 무게 비율과 부드러운 무광 마감을 제공한다. 또 아노다이징 공정을 통해 다양한 컬러 표현도 가능하다. 기념비적인 에디션에 걸맞게, 무브먼트 역시 하이 콘셉추얼한 HUB6035 오토매틱 투르비용을 장착했다. 가장 독창적인 요소는 전통적인 솔리드 메인 플레이트 대신 테니스 라켓 스트링에서 영감받은 3차원 입체 격자 구조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각각의 스트링은 두께 0.55mm에 불과하며, 테니스 라켓 내부 프레임에 따라 배치한 스트링 구조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메인 플레이트가 수많은 스트링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조

각을 첨단 레이저 가공으로 완성한 것이다. 레이저 가공이 완료된 메인 플레이트는 두께가 단 몇 마이크로에 불과한 블랙 PVD 코팅으로 마감되고, 그 위에는 노박의 시그니처 로고 'NDI'를 대비되는 화이트 컬러로 인쇄했다. 이는 시각적 효과를 넘어, 그의 집념과 수많은 승리를 상징하는 메타포 역할을 한다.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메인 스프링이 담긴 배럴에서는 테니스공 형태로 장식한 스틸 로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위블로 엔지니어들은 휠 표면을 따라 2개의 S자형 곡선에 로동 풀리시를 적용하고, 그 주변을 정밀 레이저로 각인해 테니스공 특유의 질감을 표현했다. 여기에 옐로-그린 래커 마감을 더해, 시각적으로도 즉각 인식 가능한 테니스공 모티브를 완성했다. 투르비용 케이스는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했으며, 케이스 컬러에 맞춰 블루, 오렌지, 그린으로 각각 아노다이징 처리했다. 무브먼트는 총 2백93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12시 방향에는 로동 도금한 22K 레드 골드 마이크로 로터를 탑재했다. 이 로터에는 가공과 레이저 각인으로 위블로 로고를 새겼다. 무브먼트뿐 아니라 다이얼과 베젤, 스트랩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테일에는 노박의 커리어에 대한 오마주가 촘촘히 담겨 있다. 베젤을 고정하는 6개의 티타늄 스크류 역시 테니스공 형태로 제작했으며, 선수의 강인한 플레이를 상징하듯, 위치 전면과 후면에는 화학적으로 강화된 크리스털 글라스를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케이스 백은 컬러 알루미늄 링으로 고정했으며, 여기에 블루 1~72, 오렌지 1~21, 그린 1~8 같은 에디션 번호를 새겼다. 앞서 언급했듯, 노박이 커리어에 새로운 타이틀을 추가할 경우, 추가 번호를 부여한 새로운 위치를 더할 예정이다. 케이스 백에는 'Greatest of All Time' 문구를 각인한 뒤 화이트 래커 마감으로 마무리해 스페셜 에디션의 특별함을 부여했다. 스트랩은 화이트 레더에 화이트 스티칭을 추가하고 엠보싱 처리로 입체감을 살렸으며, 노박의 테니스 라켓 그림 테이프를 연상시키는 패턴을 적용했다. 스트랩 안쪽에는 케이스 컬러에 맞춰 블루·오렌지·그린 레더를 사용하고, 스트랩 컬러에 맞게 아노다이징 처리한 알루미늄 버클과 벨크로 루프를 통해 고정했다. 위블로만의 컬러 표현 노하우로 케이스와 스트랩 컬러를 동일하게 구현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테니스라는 운동 종목의 스포티함과 역동성, 스타일리시함이 돋보이는 컬러감과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모든 복합 소재와 하이 컴플리케이션 구조를 담고도, 위치의 무게는 단 56g에 불과하다. 실제 경기 중 착용 시 가해지는 충격과 하중까지 고려해 설계한 타임피스인 것. 이를 통해 이번 컬렉션은 위블로 앰배서더 노박 조코비치, 그리고 GOAT라는 이름에 걸맞은, 매우 창의적이고도 기념비적인 헌정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의 02-540-1356 에디터 **성정민**



1 박병 투르비용 노박 조코비치 GOAT 에디션 블루, 2 테니스 라켓을 연상시키는 메인 플레이트, 3 박병 투르비용 노박 조코비치 GOAT 에디션 그린, 4 박병 투르비용 노박 조코비치 GOAT 에디션 오렌지.



“ 박병 투르비용 노박 조코비치 GOAT 에디션은 단순한 위치를 넘어, 멈추지 않는 승리 의지, 비범한 재능, 그리고 뛰어난 위대함을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으로 자리합니다”
_by CEO 줄리앙 토나레(Julien Tornare)

Splendid Yellow

산뜻한 옐로 주얼리가 빛어낸 화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스며들 때.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그래프 옐로 다이아몬드 프로미스 링** 총 7.27캐럿의 진귀한 옐로 다이아몬드를 오벌 컷으로 장식했으며, 번치 없는 사람의 약속을 표현하기에 제격이다. 가격 미정.
문의 02-2150-2320 **피아제 선라이트 펜던트 옐로 골드**에 6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98개의 옐로 사파이어를 세팅해 햇빛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275 **프레드 포스텐 브레이슬릿** 닷고리 모티브의 옐로 버클에 사파이어와 시트린을 총총하게 파베 세팅해 스톤의 광채를 강조했다. 1천9백39만원. 문의 02-514-3721 **다올 파인주얼리 로즈 드 방 브로치** 옐로 & 핑크 골드에 행운을 상징하는 타이거즈 아이와 다이아몬드의 굴벌, 옉스 벨, 자개 소재 은방울의 참을 순서대로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반클리프 아펠 플레르 드 하와이 링** 만개한 정원의 활기찬 컬러에서 영감받았다. 옐로 골드로 잎사귀를 표현하고, 다이아몬드로 암술을, 9.3캐럿 시트린으로 꽃잎을 화려하게 구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다미아 마르케리타 네크리스** 사랑과 우정을 뜻하는 데이지 꽃을 다이아몬드와 시트린으로 우아하게 표현했다. 가격 미정. 02-515-1924 에디터 김하얀

아시스턴트 김보민

Celestial Code

주얼리의 아름다움을 넘어, 별자리를 테마로 개인의 정체성과 서사를 담은 반클리프 아펠의 조디악(Zodiaque) 컬렉션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별자리에 깃든 메종의시간

반클리프 아펠은 1906년 탄생한 이래 행운과 상징, 그리고 서정적 상상력을 메종의 정체성으로 삼아왔다. 그중 천체에 대한 관심은 워치뿐 아니라 주얼리를 제작할 때 역시 메종의 꾸준한 모티브가 되어주었다. 1950년 반클리프 아펠은 천체를 주제로 한 주얼리를 선보인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골드 메달을 채택했는데, 이는 '자기 초상'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반클리프 아펠은 성원에 힘입어 이 초기작을 바탕으로 한 라 부티크(La Boutique) 컬렉션을 선보였으며, 별자리 메달을 일상생활에서도 어울리는 주얼리로 탈바꿈시켰다. 다양한 사이즈와 믹스 매치가 가능하도록 정비했고, 컵스 링크로도 탄생시켰다. 1970년대에는 별자리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작품에 볼륨을 더해 우드, 다이아몬드, 장식용 스톤 등으로 다채롭게 선보였다. 이는 펜던트, 브레이슬릿, 네크리스, 클립, 벨트, 키 링 등으로 완성되었으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어울리는 컬렉션으로 자리 잡았다. 이 컬렉션의 인기는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2014년 초, 메종은 서정적인 우주를 그려내는 포에틱 아스트로노미(Poetic Astronomy)의 세계를 통해 타인 피스 분야에서 별자리를 주제로 탐구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 출시한 조디악 루미뉴(Zodiaque Lumineux) 타임피스 컬렉션은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다이얼에 환한 빛을 밝히는 별자리와 상징을 구현했다. 이후 2021년 반클리프 아펠은 주얼리에서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소재를 향한 메종의 주얼리 취향과 별자리가 주는 영감을 하나로 담아내 12개의 룽 네크리스 세트를 선보였다. 이 작품들은 텍스처가 매혹적인 로즈 골드와 다양한 장식용 스톤이 어우러져 저마다의 고유한 개성으로 빛나 많은 이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 1 화이트 골드 조디악 레오(사자자리) 메달.
- 2, 3 화이트 골드 조디악 버고(처녀자리) 메달.
- 4 화이트 골드 조디악 아쿠아리우스(물병자리) 메달을 네크리스로 착용하고 옐로 골드 조디악 아쿠아리우스 브레이슬릿을 매치한 모델.
- 5 옐로 골드 조디악 타우루스(황소자리) 브레이슬릿. 6 옐로 골드 조디악 스콜피오(전갈자리) 브레이슬릿. 7 옐로 골드 조디악 타우루스(황소자리) 메달 뒷면.

새로운 방식으로의진화

2026년 1월, 반클리프 아펠은 새로운 조디악 컬렉션을 선보였다. 최초의 옐로 골드 조디악 컬렉션에 화이트 골드 메달을 추가하고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으로 새롭게 해석했다. 화이트 골드 메달은 사이즈는 기존 대로 유지한 채 50cm 또는 70cm 체인에 슬라이드 방식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해, 다양한 스타일과 상황에 맞춘 연출을 가능하게 했다.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의 메달은 손목에 잘 어울리도록 16mm 크기로 조정했으며, 체인은 베일 장식을 적용해 완성했다. 클래스프는 메달 가까이 배치해 사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메달이 자연스럽게 경쾌하게 흔들리게 했다. 메달 양면에는 별자리 형상과 로마 숫자로 표기한 기호 및 날짜를 새겼으며, 정교한 양각과 텍스처가 어우러져 깊이를 더한다. 모든 작품은 전통적인 스탬핑 기법으로 제작하며, 별자리의 특징을 정밀하게 구현하기 위해 최대 8회의 스탬핑 과정을 거친다. 이후 골드 소재는 세심한 후작업으로 은은한 파티나 효과가 살아나고, 입체적인 모티프는 풀리싱을 통해 표면 위에서 또렷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처녀자리를 상징하는 버고(Virgo)는 유니콘과 젊은 여성의 형상으로, 양자리를 상징하는 에어리즈(Aries)는 양털의 질감과 역동적인 자세로, 사자자리를 상징하는 레오(Leo)는 고대 도상학에서 영광받은 위엄 있는 자세로 표현해 생동감을 부여했다. 새로운 조디악 컬렉션은 별자리를 통해 각자의 시간을 기념하는 주얼리라는 본질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조디악 컬렉션은 메종이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해온 상징의 언어를 현재형으로 완성한 또 하나의 아트 피스라 할 수 있다. 문의 1877-4128 에디터 성정민

“

조디악 컬렉션은 별자리를 통해 각자의 시간을 기념하는 주얼리라는 본질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메종이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해온 상징의 언어를 현재형으로 완성한 또 하나의 아트 피스다”



(앞부터 차례대로) 블랙 아세테이트 프레임에 큼직한 오렌지 틴티드 렌즈를 매치한 T-바 바이저 선글라스 60만원대 **맥퀸**. 문의 02-6102-2226. 직사각형의 얇은 골드 메탈 프레임과 더블 F 로고 장식 브리지가 조화로운 펜디니스 선글라스 가격 미정 **펜디**. 문의 02-544-1925. 볼드한 2개의 브리지 디테일이 특징인 그린 아세테이트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유니크한 투톤 프레임에 골드 V 로고를 더한 선글라스 가격 미정 **발렌티노**. 문의 02-2015-4655. 렌즈부터 프레임까지 모두 블랙으로 통일한 뒤 브리지에 주얼 장식을 추가해 화려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선글라스 가격 미정 **생 로랑 바이 안토니 바카렐로**. 문의 02-545-2250. 빈투영 그린 렌즈와 화려한 패턴의 프레임이 인상적인 라운드 선글라스 61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에디터 김하얀**



Under Cover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감싸는 대담한 사이즈, 스포티한 감성, 그리고 안정감 있는 실루엣의 조합으로 완성한 고급형 선글라스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아이스티토 김보경



Stroke of Legacy

몽블랑은 혁신적 디자인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필기구는 물론 가죽과 시계 등 다양한 제품 영역을 선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조르지오 사르네(Giorgio Sarné)를 CEO로 맞이하며 새로운 비전을 알렸다. 2025년 한국을 찾은 그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브랜드의 방향성, 나아가 글로 소통하는 문화를 견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와 직접 만나 나눈 이야기를 공유한다.



1 몽블랑 CEO, 조르지오 사르네의 모습. **2** 총 3개 층의 건물로 창립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브랜드의 역사, 필기구와 글쓰기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독일 함부르크 몽블랑 하우스(Montblanc Haus). **3** 글을 쓰는 작가의 작업 공간과 캐비닛에서 영감받은 이동형 라이팅 트래블러 백은 출장과 여행 중 언제든 글을 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4** 몽블랑 하우스 오토그래프 라이브러리에 전시 중인, 박서보 화백이 아내에게 보낸 손 편지. **5** 몽블랑 아티스틱 디렉터 마르코 토마세타(Marco Tomasetta)가 디자인한 브랜드 최초의 가구, 몽블랑 데스크. **6** 글쓰기 문화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몽블랑의 핵심, 마이스티스틱 만년필.

조르지오 사르네는 태그호이어, 스튜어트 와이츠먼 등 유수의 브랜드를 거치며 쌓아온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몽블랑에 새로운 방향성을 불어넣는다. 그는 "몽블랑은 필기구와 가죽 제품, 시계와 테크에 이르기까지 숙련된 장인들의 기술력과 대담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1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제품을 선보여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브랜드를 대표하는 필기구와 필기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도 큰 자부심이자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며 브랜드의 본질과 필기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냈다. 이어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진정성 있는 열정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SC(Style Chosun) 첫 공식 내한으로 알고 있다. 이번 방문의 주목적이 무엇인가. 한국은 매우 역동적이며 트렌드에 민감한 시장이다. K-팝과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문화적 영향력 또한 한층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한국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재검토했다고 한다.

SC 다양한 브랜드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핵심 가치가 있다면? 그동안 경험해온 브랜드를 되짚어보면, 결국 소비자를 향한 애정과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귀결된다. 그 뒤로 탄탄한 제품력과 장인 정신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몽블랑 역시 소비자와 제품에 대한 열정과 그 안에 담긴 장인 정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이 가치를 마음 깊이 존중하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품이 바로 마이스티스틱 만년필이다. '컬렉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몽블랑 전 컬렉션의 근간이 되는 철학과 비전을 품고 있다.

SC 몽블랑에는 필기, 가죽, 시계 등 다채로운 제품군이 존재한다. CEO로서 가장 애착이 가거나, 좀 더 강화하고 싶은 카테고리라 있다면? 단연 필기구다. 가죽 제품은 물론 잉크, 데스크 액세서리까지 몽블랑의 모든 카테고리에는 글쓰기에서 출발해 확장된 카테고리다. 몽블랑은 글쓰기 문화에 깊은 뿌리를 둔 만큼, 펜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경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동시에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몽블랑 부티크를 찾은 한 아버지의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딸이 태어난 날부터 매년 딸의 생일마다 몽블랑의 만년필과 노트로 편지를 썼다. 그 편지들은 훗날 아이에게 전해질 삶의 기록이자 사랑의 메시지가 되었고, 글을 쓰는 순간이 쌓여 특별한 날을 완성했다. 이처럼 소중한 순간을 발견하고 의미 있게 기록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사명이다.

SC 브랜드를 응축적,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몽블랑 하우스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낵이 있다면? 오토그래프 라이브러리다. 박서보 화백의 친필 편지를 포함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의 손 글씨가 한자리에 전시되어 있다. 그들이 남긴 글에 담긴 메시지를 눈앞에서 마주하고 손 글씨를 통해 글쓰기가 지닌 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개성과 감성을 담은 다채로운 필체가 만들어진 장관은 그 자체로 예술적이며,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SC 향후 10년 또는 그 이상, 글로벌 브랜드로서 절대 변하지 않을 저력 또는 비전이 있다면? 기술과 디자인, 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몽블랑을 이야기할 때 1백20년 넘게 이어져온 장인 정신을 빼놓을 수 없다. 하나의 만년필에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장인의 노하우와 시간이 오롯이 담겨 있으며, 그 위에 끊임없는 혁신이 더해진다. 그리고 글쓰기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한때 컴퓨터의 등장으로 손 글씨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형태를 바꾸며 계속 이어져왔다. 시를 포함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도, 글쓰기는 시대를 관통하며 영원히 지속될 가치라고 믿는다. 문의 1877-5708 **에디터 김하얀**

2

6



풍성하게 연출할 수 있는 실크 소재
틸 드레스 가격 미정 **에델린**.

endlessly blessed

무한한 축복 속에서 피어난 필연의 아름다움.

PHOTOGRAPHED BY **KIM SUNHYE**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197mm의 팔각형 케이스에 레드 레커 다이얼과 블랙으로 감싸 레드 러버 스트랩을 추가한 프리미에르 워치 가격 미정 **샤넬 워치**, 상세한 페르티이 연상되는 테퍼스트리 기법의 다이얼, 다이아몬드 배젤, 날짜 디스플레이를 장식한 에펠리, 셀프 와인딩 워치 15천7백50만원 **바셀론 콘스탄틴**,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컷 다이아몬드 1백64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 조세핀 이그레드 네크리스 7천6백만원대 **쇼페**, 88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중앙에 방동 광경이 연상되는 에펠드 컷 록 크리스탈을 더한 리비에트 방울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부쉐론**, 모델이 착용한 심플한 디자인의 파토르 레디언트 상클 클립 이어링, 벨의 머리를 상징하는 드롭 모티브 다이아몬드로 우아하게 장식한 세뽕 보행 스물 링 모두 가격 미정 **부쉐론**.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 이코아 진주와 리드미컬한 라인의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담은 청토 시그니처 다이아몬드 이어링 가격 미정 **타사키**,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TI 시클 라지 다이아몬드 펜던트 네크리스 가격 미정 **타파니**, 지름 34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실버 도금 다이얼, 12개밖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86개가 조화를 이루는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1천6백60만원 **IWC**, 포인티드 토포 로퍼 **토조**, 두께가 약 3개의 링을 감싼 파베 다이아몬드 링크가 포인티드 링, 오픈 디자인의 투게더 링, 오픈 디자인의 투게더 링 모두 가격 미정 **포렐라토**, 포 스티치 클라브 가격 미정 **매송 미르치엘라**.



모델이 착용한 쥘트 패턴의 베이지 & 화이트 골드 코코 크러쉬 드롭 이어링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공작 깃털의 디테일을 정교하게 표현한 플립 드 펑 মি디엄, 네크리스 가격 미정 **부쉐론**, 여성스러운 레이스 톱과 스커트 모두 **파비아나 필리피**, 램 스킨 소재 슬랑백 펌프스 가격 미정 **에르메스**, 브라 톱과 스타킹 에디터 소장품, (아래) 총 2769캐럿의 크고 작은 패어와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장식한 네크리스 가격 미정, 유연한 리본 구조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탈다의 보우 이어링 6천57만원 모두 **그라프**.



아이코닉한 빌레레 컬렉션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뉴 빌레레. 지름 40mm의 18K 골드 케이스를 갖춘 골드 브라운 다이얼에 컴플리트 캘린더와 문페이즈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7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한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 워치 4천4백45만원, 지름 33.2mm의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골드 브라운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베젤, 그리고 브라운 엘라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더했으며,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한 빌레레 우먼 데이트 문페이즈 3천9백88만원 모두 **블랑팡**.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자개 다이얼과 로마숫자 인덱스가 스물 세컨즈 인디케이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시각적 균형을 더하며, 케이스부터 리그까지 하이 주얼리 못지않게 다이아몬드를 수놓아 궁극적인 워치메이킹을 보여주는 레이디버드 컬러즈 미드나잇 블루 4천9백19만원 **블랑팡**, 주름 디테일 드레스 가격 미정 **파비아나 필리피**, 지름 34.9mm의 레드 골드 케이스와 베젤, 리그에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세팅하고 다이얼은 자개와 로마숫자 인덱스로 장식한 레이디버드 컬러즈 포레스트 그린 4천9백19만원 **블랑팡**, 무지개가 연상되는 다채로운 컬러의 로마숫자 인덱스, 6시 방향 문페이즈가 대담한 컬러 대비를 이룬다. 퀵 체인지 가능한 레몬 셔벗 옐로, 핑크 등 5종의 엘라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함께 제공하는 레이디버드 컬러즈 화이트 6천1백77만원,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얼, 베젤, 크라운, 리그, 버클까지 총 2개럿이 넘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부드러운 광채를 지닌 '나크르 필레(nacre perlée)' 자개 다이얼로 더욱 특별하게 완성한 레이디버드 컬러즈 로얄 퍼플 5천2백46만원 모두 **블랑팡**.





닷고리 세이프의 골드 버클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포스텐 싱글 이어링 1천7백
42만원 **프레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43개를 담은
밴드에 페어 컷 다이아몬드
1개를 더한 조세핀 아그레드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쇼메**.
플라워 프린트 벌룬 드레스
가격 미정 **모니크 할리에**
by 마이도터스웨딩.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1캐럿의 하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프리티 오리엔 인메이지먼트 링 가격 미정 **프레드**, 2캐럿의 리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프로미스 링 가격 미정 **그리프**, 드롭 세이프의 옐로 골드에 총 2백2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마치 후광이 비치는 신비로운 세팅 보헤미안 솔라리테 35 모티브 네크리스 가격 미정 **부세론**.
파리 건축물의 골목에서 영감받아 4개의 밴드를 결합해 완성한 페트로 화이트 링, 핑크 골드와 브라운 PVD, 13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옐로 골드를 차례대로 배열한 페트로 클래시 투트 다이아몬드 라지 앵글 모두 가격 미정 **부세론**.
트라베즈 세이프의 지름 29mm 로즈 골드 케이스와 세팅 브러시 처리한 실버 컬러 다이얼을 장식했으며, 피아제 57P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3스피드 워치 6천만원 **피아제**.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오닉스에 핑크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별을 구현한 로즈 드 방 넥크리스 가격 미정 **다울 파인주얼리**.

아트데코에서 영감을 받아, 직사각형 케이스, 가늘고 긴 핸즈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가이드를 대칭적 디자인이 멋스러운 리베르소 플래시 듀엣에 가격 미정 **에거 르클트르**.

40mm 스텝 케이스에 그린 다이얼과 목을 도금 핸즈, 교차 배열된 로마숫자 인덱스가 돋보이며, 코-엑시얼 질러버 8800으로 구동하는 드 빌 프레스티지 워치 7백만원대 **오메가**, 단결을 의미하는 로즈 골드 투게더 이어버프 가격 미정 **포멜라토**, 블랙 슬림 드레스 가격 미정 **꾸래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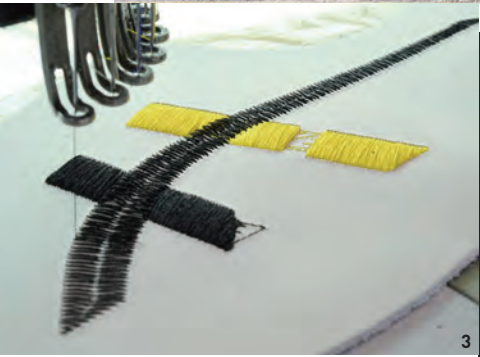


원손 검지에 착용한 루비, 에메랄드 등 유색 젤스톤을 세팅한 이코니카 각테일 링 가격 미정 **포멜라토**, 중지에 착용한 옐로 골드로 엮은 듯한 디자인이 특징인 식스틴 스톤 다이아몬드 링 가격 미정 **타파니**, 약지에 착용한 4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사이로 1개의 다이아몬드를 더한 포제션 데코 펠리스 링 1천3백만원 **피아제**, 로즈 골드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의 포제션 데코 펠리스 브레이슬릿 2천1백40만원 **피아제**, 드레이프 홀터넥 드레스 가격 미정 **렉토**, (아래) 미모사 꽃의 실루엣을 핑크 골드로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미모사 플래시 링 가격 미정 **다미아니**.

헤어 박규빈
메이크업 이아영
모델 소피아
아시스턴트 김보민, 김지현
에디터 김하얀

그라프 02-2150-2320
꾸래쥬 0507-1311-1396
다미아니 02-515-1924
다울 파인주얼리 02-3280-0104
렉토 02-790-0798
마이드터스웨딩 02-549-7331
메종 마르자엘라 02-722-3234
바쉐론 콘스탄틴 1877-4306
부쉐론 080-822-0250
블랑팡 02-3479-1833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 080-805-9628
쇼메 02-1670-1180
에델린 0507-1331-9176
에르메스 02-542-6622
에거 르클트르 02-6905-3998
오메가 02-3467-8632
타사키 02-3461-5558
토즈 02-3438-6008
타파니 02-6250-8620
파비아나 필리피 02-3467-8582
포멜라토 0030-8321-0441
프레드 02-514-3721
피아제 1668-1874
IWC 1877-4315





Innovation in Modern Craft

구름 사이로 펼쳐이는 노란 깃발. 일본의 고즈넉한 소도시 마을에 세워진, 옐로와 블랙 컬러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구조물이 눈에 띈다. 일본 특유의 정교함으로 완성된 유니크한 디자인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기술력이 결합된 스포츠 브랜드 오니즈카타이거의 첫 번째 자체 생산 공장 이노베이트브 팩토리. 브랜드의 저력과 일본 장인 정신의 가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현장'이다.



1 일본 돗토리현에 자리한 오니즈카타이거의 첫 자체 생산 공장 '오니즈카 이노베이트브 팩토리'. 2026년 1월 1일 개관했고, 1월 15일 공식적인 개관식을 열고 출발을 알렸다. 시그니처 컬러인 블랙과 옐로로 이루어진 감각적 디자인이 눈에 띄는 이곳은 창업자의 고향에 세운 공장이라 더욱 의미 깊다. 2 공장 바로 옆에 있는 갤러리 스토어에서는 취향대로 선택해 주문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재부터 컬러까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슈즈를 만들 수 있다. 3 세계적인 실버이 된 오니즈카타이거의 시그니처 문양을 섬세한 자수로 새겨 넣고 있다. 일본 특유의 미학과 역동성을 담고 있다.



4, 7, 10 브랜드의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제작 공정. 일본의 핸드크래프트맨십과 최신 테크니컬 과정을 공장 내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5 일본의 셀러브리티 아마시타 토모히사와 함께 제작한 스페셜 슈즈. 팩토리에서 생산하는 첫 번째 협업 모델로, 전 세계 1천 죽 한정으로 출시된다. 돗토리현의 사구를 떠올리게 하는 은은한 컬러와 고급 스웨이드로 제작했다.



첫 자체 생산 시설
‘오니즈카 이노베이트브 팩토리’
오니즈카타이거는 1949년, 오니즈카 기하치로가 아식스의 전신인 오니즈카 주식회사를 세우며 탄생한 브랜드다. 오늘날 오니즈카타이거는 일본 고유의 헤리티지에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디자인을 선보여 전 세계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다. 클래식한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부터 새로운 스타일, 그리고 예술가 및 문화적 감성을 공유하는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까지, 브랜드의 모든 컬렉션에는 일본 특유의 정서와 미학이 담겨 있다. 7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오니즈카타이거가 2026년 1월 1일, 브랜드 창립자 오니즈카 기하치로의 출생지인 일본 돗토리현에 첫 자체 생산 시설인 오니즈카 이노베이트브 팩토리(Onitsuka Innovative Factory, OIF)를 개관했으며, 이를 기념해 1월 15일에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오니즈카 이노베이트브 팩토리는 소재 개발부터 디자인, 생산에 이르는 전 공정을 하나의 공간에 집약한 것이 특징으로, 향후 오니즈카 타이거의 브랜드 비전과 일본 장인 정신의 가치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문화적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깨끗이 정돈된 공장 내부에서는 정교하고도 진지한 작업 공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공장에서 브랜드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허브인 밀라노 디자인 센터와 첨단 스포츠 테크놀로지 연구를 담당하는 아식스 스포츠공학연구소(Institute of Sports Science, ISS)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져 오니즈카타이거만의 헤리티지와 혁신이 더욱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첨단 팩토리를 통해 브랜드의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니폰 메이드(Nippon Made) 시리즈와 포멀 레더 슈즈 라인인 더 오니즈카(The Onitsuka) 등 고부가가치의 프리미엄 풋웨어 생산도 한층 강화할 예정. 또 브랜드 최초로 가죽 가방 생산에 나서며 크리에이티브 영역을 더욱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바로 옆에 위치한 갤러리에서는 브랜드의 장인 정신을 조명하는 특별한 존과 함께 희귀 아카이브 피스 전시도 선보인다. 1월 16일에는 돗토리현에 최초로 선보이는 오니즈카타이거 매장 ‘오니즈카 갤러리 스토어(Onitsuka Gallery Store)’를 오픈하기도 했다. 이 매장에서는 오니즈카 이노베이트브 팩토리에서 제작한 니폰 메이드 제품을 비롯해 소재와 컬러, 각인 서비스 등을 마음대로 골라 주문할 수 있는 커스텀 오퍼 슈즈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오니즈카 이노베이트브 팩토리 내 오픈토리움은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은 물론 전 세계 방문객이 모여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자부심을 지역의 공공 이익과 결합한 돗토리현의 새로운 핫 스폿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www.onitsukatiger.com

패션과 스포츠, 헤리티지와 혁신을 결합하다

오니즈카타이거의 대표 쇼타 로지(Ryoji Shoda)는 이번 개관 인사말에서 “오니즈카 이노베이트브 팩토리는 일본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를 융합하는 브랜드의 새로운 중심지”라며, “창립자의 고향에서 탄생한 제품을 세계에 선보이는 동시에, 장인 기술의 계승과 차세대 인재 육성을 통해 일본에서 태어난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진화시켜나갈 것”고 의지를 밝혔다. 오니즈카 이노베이트브 팩토리는 돗토리현과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술 및 인재 육성, 관광 활성화, 로컬 기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또 브랜드의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글로벌 거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나갈 계획이다. 개관을 기념해 돗토리현 출신이자 밀라노에서 마슬랭 스타를 획득한 최초의 일본인 셰프 도쿠요시 요지(Yoji Tokuyoshi)가 큐레



6 세련되고 쾌적한 분위기의 돗토리현 최초 오니즈카타이거 스토어 내부. 최신 컬렉션 전시와 커스터마이징 주문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8 니폰 메이드 시리즈를 볼 수 있는 특별 제작 사카이미나토 커스텀메이드 슈즈. 9 브랜드의 장인 정신과 아카이브 슈즈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갤러리. 다양한 아카이브 슈즈와 제작 공정 현상이 전시되어 있다. 11 개관식에서 도쿄 세션에 참여하고 있는 아마시타 토모히사. 그가 직접 디렉션해 제작한 슈즈가 한정 출시될 예정이다(5번 사진 참조).

오니즈카 갤러리 스토어
주소: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와타리초 2900
운영 시간: 11:00~17: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오니즈카타이거 창립자의 고향인 돗토리현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표현을 세계에 전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번 디자인에는 브랜드가 오랜 시간 이어온 일본 장인 정신에 대한 깊은 존경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제가 느낀 오니즈카타이거의 모습, 즉 단순하면서도 편안하고, 일상에서 함께하는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감정을 이 슈즈의 디테일 하나하나에 담아 완성했습니다”
- 아마시타 토모히사

이선한 '리스토란테 오니즈카타이거(Ristorante ONITSUKA TIGER)'를 선보였다. 돗토리현의 로컬 식재료와 풍부한 자연을 담은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 메뉴를 통해, 오니즈카타이거는 패션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확장한다. 이 콘셉트는 2026년 9월 오픈 예정인 오니즈카타이거 밀라노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다시 한번 선보일 예정이다.

일본 장인 정신을 테마로 한 오리지널 슈즈 공개

이번 행사는 오니즈카타이거와 돗토리현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브랜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개관식에는 돗토리현 지사와 사카이미나토시 시장을 비롯한 주요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가능성과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오니즈카 이노베이트브 팩토리에서 일본의 아티스트 아마시타 토모히사의 디자인 디렉션 아래 완성된 오리지널 슈즈 'MEXICO 66 NM L9'를 공개했다. 일본 장인 정신을 핵심 테마로 한 이번 모델은 돗토리현의 유명 관광지인 사구(모래언덕)에서 영감을 얻어 컬러 팔레트를 적용했으며, 고급 스웨이드 가죽 피어를 통해 한층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이 제품은 전 세계 1천 죽 한정 출시되며, 전용 쇼퍼백과 스페셜 카드를 함께 제공한다. 해당 모델은 팩토리에서 생산하는 첫 번째 협업 모델로, 3월 중 갤러리 스토어와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출시될 예정. 상세 정보는 추후 스페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https://www.onitsukatiger.com/innovative-factory/>(일본 현지 취재)

Get

The

List



CHANEL FINE JEWELRY

컬링 패턴을 새긴 C 모티브에 센터 다이아몬드를 배치해 모던 클래식의 정수를 선사하는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코코 링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RIMOWA

부드럽고 매끈한 송아지가죽을 사용해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그루브 백 스틸, 아이코닉한 캐리어에서 영감받아 모던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톱 핸들, 크로스 보드로 착용 가능하다. 1백66만원 **리모와**, 문의 02-546-3920



JAEGER-LECOULTRE

1931년 최초의 리베르스 모델을 연상시키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401×244mm 스틸 케이스에 실버 그레이 컬러의 오팔린 다이얼을 매치해 완성한 리베르스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어 어떤 손목에나 잘 어울린다. 1천3백만원대 **예거 르쿨트르**, 문의 1877-4201



IWC

제랄드 전담의 혁신적인 인제니어 디자인과 커트 클라우스의 크라운 작동 방식 퍼페추얼 캘린더를 결합한 최초의 스페인러스 스틸 모델, 지름 41mm에 일체형 브레이슬릿, 블루 다이얼, 로몸 도금 핸즈와 아틀라게가 특징인 인제니어 퍼페추얼 캘린더 41 5천8백만원 **IWC**, 문의 1877-4315



PRADA

2026 S/S 컬렉션에서 첫선을 보인 백으로 '가방을 담은 가방'이라는 개념에서 착안한 중앙 수납공간과 리나일론 소재 플랩이 특징이다. 클래식한 사다리꼴 실루엣이 건축학적 디자인 감각과 볼륨감을 선사하는 패시지 미디어 가죽 백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OMEGA

오메가의 가장 상징적인 위치 중 하나로 지름 40.5mm 스틸 케이스에 깊이 있는 딥 블루 다이얼을 매치하고, 2개의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를 6시 방향과 9시 방향에 배치해 균형미를 보여주는 스피드마스터. 칼라버 오메가 9906으로 구동하며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1천4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3479-6025



HUBLOT

마이크로 블라스트 및 폴리싱 처리한 블랙 세라믹으로 완성한 44mm 케이스와 안감 처리한 블랙 스트러처드 러버 스트랩의 조화로 세련미와 위엄을 자랑하는 빅뱅 유니코 블랙 매직 4천만원대 **위블로**, 문의 02-540-1356



GRAFF

(위부터 차례대로) 플래티넘 밴드에 그라프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파라곤 링, 1.07캐럿의 에메랄드 컷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솔리테어 스타일의 플래임 링 모두 가격 미정, 스파이럴 형태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독특함을 부여한 화이트 골드 밴드 2천5백96만원, 구조적인 기하학적 모티브를 새긴 화이트 골드 밴드 위 패턴을 따라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 링 1천1백39만원 모두 **그라프**, 문의 02-2150-2320 **에디터 성정민**

아이스티트 김보민, 김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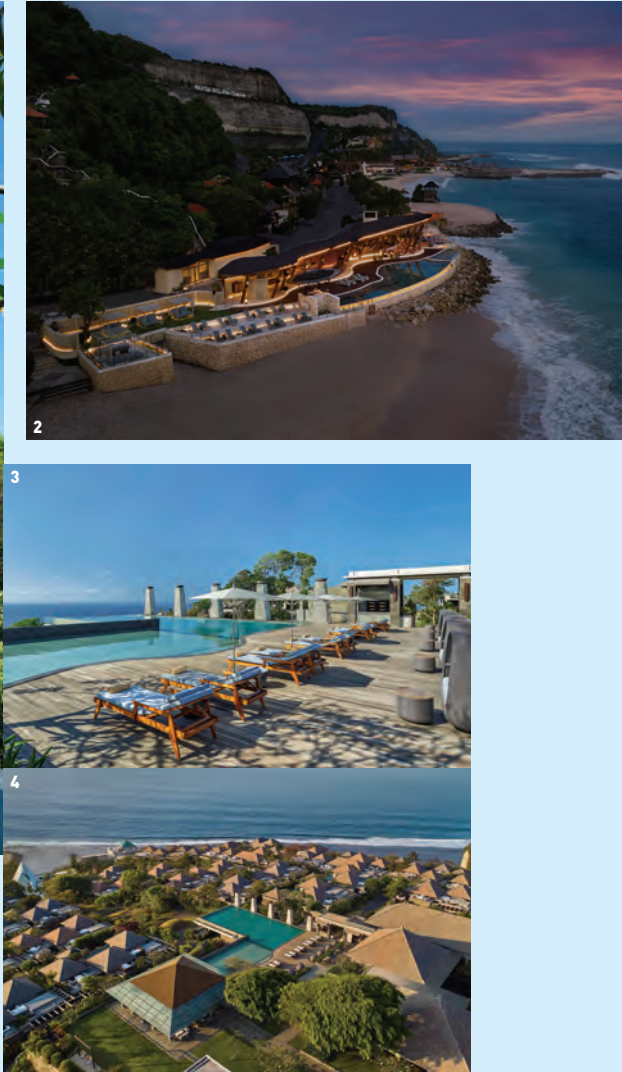
발리 최남단에서, 럭셔리 파라다이스

인도네시아 발리주 응우라라이(Ngurah Rai) 공항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올루와투 절벽.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들어가듯 생경하게 굽이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태초부터 대자연의 일부인 듯 주변 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리조트가 모습을 드러낸다. 힐튼 최상위 럭셔리 컬렉션인 'LXR'의 철학 아래 설계된 우마나 발리, LXR 호텔(Umana Bali, LXR Hotels & Resorts)이다.

여행자들 사이에서 발리섬 최남단에 자리한 응가산(Ungasan)은 누구나 반드시 거쳐 가는 명소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따라 초호화 럭셔리 리조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신흥부 및 커플 관광객에게 가장 각광받는 여행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흔히 떠올리는 꾸따(Kuta), 세미나(Seminyak) 같은 도심이나 액티비티의 천국 우붓(Ubud)처럼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가 아닌,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시간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인 것이다. 우마나 발리, LXR 호텔에 도착해 로비에서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의 신비로운 가락, 오감을 깨우는 웰컴ドリンク을 즐기며 체크인을 마친 직원들이 빨강과 검정, 흰색의 실을 능숙하게 꼬아 만든 팔찌를 내준다. 삶의 균형과 보호의 의미를 담은 트리다투(Tridatu) 팔찌다. 일종의 의식을 치르듯 안면을 기원하는 이 팔찌를 손목에 끼는 순간,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여행이 비로소 시작되는 셈이다. 응가산 지역 프라이빗 리조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럭셔리 스포츠로 정평이 나 있는 우마나 발리, LXR 호텔. 광활한 인도양이 내려다보이는 올루와투 절벽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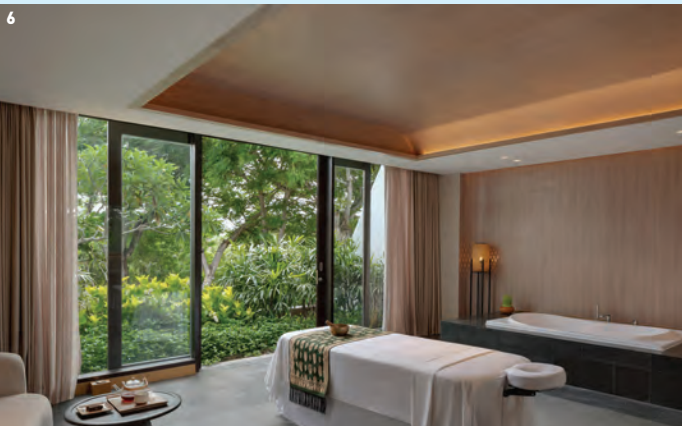
형을 따라 프라이빗 풀을 갖춘 빌라형 객실을 자연스럽게 배치한 점이 인상적이다. 덕분에 투숙객들은 서로의 시선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마치 세상에 오롯이 두 사람만 남은 듯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민낄 수 있다. 내부 구조 또한 유려하다. 탁 트인 거실과 침실, 욕조와 파우더 룸이 자리한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으면서도,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며 속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한다. 특히 거실과 침실에서 바로 인피니트 풀로 뛰어들 수 있도록 설계한 구조는 단연 압권이다.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다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도시의 소음과 그곳에서 생겨난 고민거리가 움소거 버튼을 누른 듯 모두 말끔히 자취를 감추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리조트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다이닝, 바 역시 수준급이다. 먼저 지중해식 레스토랑 올리베라(Olivera)는 절벽 가장자리에 위치해 바다 전망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이다. 끝을 가능하기 어려울 만큼 드넓은 물라스피 해변과 수평선 너머로 차오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독이 쌓일 틈이

1 객실에 자리한 인피니트 풀. 한편에 위치한 저쿠지에서는 버블 스파도 즐길 수 있다. 2 우마나 비치 하우스는 드넓은 해안가를 마주하고 있어 '선셋 맛집'으로도 유명하다. 3 투숙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메인 풀장. 4 부킷(Bukit)반도 특유의 절벽 지형처럼 층층이 배치한 객실 덕분에 외부 방해 없이 로맨틱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5 리조트 내에서도 절벽 끝쪽에 자리해 절경을 자랑하는 올리베라 레스토랑. 6 발리 특유의 트리 히타 카라나 철학에 걸맞게 영적 평온을 제공할 수 있는 로호마 스파 내부의 모습.



없을 터. 근사한 하늘을 더욱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파티오는 이곳의 하이라이트이니 잊지 말고 거닐어보길 권한다. 윤리적 경영과 지속 가능한 방식을 추구하는 코뮌(Commune) 레스토랑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리하고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다. 지역 특산물에 현지 장인의 터치를 가미한 동남아시아 음식은 물론,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양식, 어린이를 위한 메뉴까지 마련되어 있다. 한곳에서 이토록 다양한 맛의 변주를 경험할 수 있으나, 맛집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리조트에서 서비스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우마 비치 하우스(Uma Beach House)는 흥겨운 분위기가 그라울 때 실패 없는 선택이다. 경쾌한 핑크빛으로 물든 마이메이퐁 노천 레스토랑을 갖춘 이곳은 일분과 페루에서 영향받은 요리와 형형색색의 시그니처 칵테일을 제공한다. 해 질 녘 방문해 저녁 식사를 하다 보면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는데, 이 시간대를 사수해야 한다. 미국적인 석양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숙객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밖에도 기분 좋은 호스피탈리티를 받을 수 있는 패드 풀 바(Pad Pool Bar)와 메르 라운지(Mer Lounge) 등 다채로운 미식 공간이 기다리고 있다.

단순한 숙박의 개념을 넘어 깊이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누릴 수도 있다. 신과 인간, 자연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트리 히타 카라나(Tri Hita Karana)'는 발리의 삶과 문화, 자연관을 관통하는 대표 개념. 이러한 철학을 계승해 세심하고 편안한 시간을 제공하는 로호마 스파(Lohma Spa)는 리조트를 넘어 발리에서도 품격 있는 스파 프로그램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전문 테라피스트의 능숙한 손길과 현지 천연 허브로 만든 오일의 조화를 운眸으로 감각하노라면 심신이 이완되며 내면의 평화로움을 마주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문화를 보다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클래스도 즐비하다. 세계 4위 커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대표 커피 품종을 맛보고 비교할 수 있는 커피 클래스부터 다양한 와인과 간단한 안주 페어링을 즐길 수 있는 와인 테이스팅 세션, 발리 전통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쿡킹 클래스 등 분야를 막론한 풍성함으로 무장했다. 이곳이 무게감이 곧 계획인 '휴식파'와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도전가' 타입의 여행객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는 리조트인 이유이기도 하다. 글 **임나영**(발리 현지 취재) 문의 +62 361-300-7000, <https://www.hilton.com/en/hotels/dpsolol-umana-bali-resort>



The Ultimate Renaissance

사랑하는 이에게 시간을 초월한 궁극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고귀한 장미로 완성한 디올 프레스티지 레 넥타 드 로즈 컬렉션.

피부 깊이 생명력을 전하는 단 하나의 장미 지난 20년 동안 디올 사이언스는 디올 프레스티지 라인의 핵심이자 놀라운 생명력을 지닌 전설적인 꽃, 로즈 드 그랑빌을 연구해왔다. 디올 스킨케어 연구진은 그랑빌 바닷가의 혹독한 기후에 맞서 피어난 이 고귀한 장미를 일곱 번의 개량을 거쳐 4만여 종으로 발전시켰고, 그중 오직 디올 스킨케어를 위한 단 하나의 장미를 선택했다. 이후 이 장미에 담긴 경이로운 생명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로 응축해왔으며, 마침내 더없이 진귀한 장미 추출물로 피부에 활력과 생기를 더하는 시그니처 콤플렉스 '로사펠타이드™'를 탄생시켰다. 놀라운 에너지가 잠재된 이 복합체는 꽃 전체에 흐르는 힘과 생명력을 강력한 농축액에 담아, 피부 밀도를 탄탄하게 채우

1 (왼쪽부터) 디올 프레스티지 르 넥타 앰데그랄 20ml 1백1만5천원대, 디올 프레스티지 르 넥타 프리미에 30ml 1백2만원대(리필 90ml 18천원대, 코프레 1백73ml 15천원대), 디올 프레스티지 르 밤 드 미누르 50ml 90만8천원대(리필 77ml 2천원대), 2 프레스티지 컬렉션의 핵심이자 놀라운 생명력을 지닌 전설적인 꽃, 로즈 드 그랑빌.

며 3단계의 에이지-리버싱 효과를 전한다. 디올 사이언스 연구 팀은 장미의 워터와 오일 성분이 이루는 이상적인 밸런스에 주목했고, 장미가 자라는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천연 자연 유래 용매를 사용하는 혁신적인 초분자 추출법을 적용했다. 그 결과, 식물 영양 성분이 6배 더 농축된 풍부한 활성 성분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 특별한 연구의 집약체가 바로 디올 프레스티지 레 넥타 드 로즈 컬렉션이다. 이 컬렉션은 탄탄한 피부 밀도를 선사하는 울트라 컨센트레이트 '르 넥타 앰데그랄(Le Nectar Intégral)', 눈에 띄게 매끈한 피부와 주름 개선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에이지-리버싱 세럼 '르 넥타 프리미에(Le Nectar Premier)', 그리고 더욱 촉촉한 피부와 강력한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울트라-프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제품 효능 변화에 대한 일주일 사용 후 피부 전문가 평가. **일주일 사용 후와 한 달 사용 후 효과 비교.

라미엄 나이트 크림 '르 밤 드 미누르(Le Baume de Minuit)'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리추얼을 통해 로사펠타이드™ 활성 성분이 보다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되며, 감각적인 향과 텍스처가 어우러진 최상의 스킨케어 경험을 완성한다.

사랑을 전하는 가장 우아한 방식, 디올 프레스티지 리추얼 로즈 드 그랑빌의 생명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전달하는 세 가지 시그니처 제품으로 구성된 디올 프레스티지 레 넥타 드 로즈 컬렉션은 효과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스킨케어 리추얼을 제안한다. 그 중심에 자리한 르 넥타 앰데그랄은 피부에 닿는 순간 가볍게 녹아드는 에센스에 서 깊은 영양을 전하는 오일, 그리고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세럼으로 변화하는 3단계 포물선을 통해 새롭고 감각적인 사용 경험을 선사한다. 효능 또한 인상적이다. 일주일 사용*만으로 한층 탄탄해진 피부 밀도를 느낄 수 있으며, 한 달간** 꾸준히 사용하면 효과는 더욱 강화되어 눈에 띄게 어려 보이는 피부로 변화한다. 이후 르 넥타 프리미에로 로사펠타이드™ 프리미에 활성 성분을 빠르게 흡수시킨 뒤, 밤사이 피부를 촉촉히 채우며 강력한 활력을 선사하는 르 밤 드 미누르 마무리하면 완성도 높은 스킨케어 리추얼이 실현된다. 이 세 가지 제품이 만들어내는 디올 프레스티지 레 넥타 드 로즈 리추얼은 단순한 스킨케어 단계를 넘어, 사랑과 존중을 전하는 의식에 가깝다. 르 넥타 앰데그랄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스킨케어에 한두 방울 더해 피부의 에너지를 깨우는 것으로 시작해, 르 넥타 프리미에와 르 밤 드 미누르 이어지는 이 과정은 피부 깊숙이 생명력을 채운다. 다가오는 사랑의 달, 디올 프레스티지 레 넥타 드 로즈 컬렉션은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가장 정제된 표현이자,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가장 품격 있는 선물이 될 것이다. 장미처럼 고귀한 피부와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것, 그보다 더 완벽한 선택은 없다.

문의 080-342-9500 에디터 **성정민**



발리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고 싶은 이들은 스미낙으로 향한다. 현지에서도 수준 높은 쇼핑과 미식, 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것은 물론, 발리에서 뽐낼 수 없는 서핑과 요가를 부담 없이 즐기기에 지리적으로도 이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해변을 따라 밀집된 비치 클럽과 아기자기하게 늘어선 부티크, 로컬 맛집부터 근사한 다이닝까지 두루 즐기다 보면, 어느덧 일몰의 장관이 펼쳐진다. 거울의 칼바람이 매섭던 어느 날, 따스함을 찾아 떠난 발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더 르기안 스미낙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 이번 트립을 대하는 필자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깨달았다.

발리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30여 분간 이동하며 현지의 이국적인 풍경에 젖어들 때쯤 도착한 호텔에서 마주한 외관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인도양을 향해 낮고 길게 펼쳐진 프로퍼티가 호텔 특유의 위압감을 주는 대신, 주변 경관을 자연스레 흡수하며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선사했다.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아시아 현대 호텔 디자인의 거장 자야 이브라힘(Jaya Ibrahim)의 작품이다. 철저하게 계산된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객실과 공용 공간 어디에서도 바다와 하늘, 그리고 수평선이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온다. 체크인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 또한 남달랐다. 입구들이 유선형을 그리며 자유롭게 노니는 연못 위로 돌담 길을 조심스레 따라가다 보니 은밀한 로비가 나왔다. 이러한 형태의 복도는 숙박하는 내내 마치 수행을 하는 것처럼 여유로운 발걸음을 유도하며 차분한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었다.

마침내 당도한 객실 또한 케를 함게했다. 대리석과 원목, 천연 패브릭의 조화를 필두로 한 전 무드의 인테리어는 언제 방문해도 촌스럽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유행과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클래식임과 동시에 지극히 발리스러운 면모가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보다 프라이빗한 공간이나 가족 여행을 위한다면 더 클럽 바이 르기안도 훌륭한 선택이다. 호텔의 한 동이 아닌, 완전히 분리된 빌라형 숙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전용 수영장장과 정원, 24시간 전담 버틀러 서비스까지 제공해 극강의 편리함을 만끽할 수 있다.

숙소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 1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곳의 레스토랑은 호텔 앞 인도양을 바라보며 식사하도록 설계됐다. 계단식 인피니티 풀과 해변의 모래사장 너머 수평선이 이어진 듯 한상적인 전망이 펼쳐지는데,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노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나니, 마치

조금 느리게, 휴식의 본질을 정의하다

때로는 유행의 흐름이 정신없을 정도로 빠르게 느껴지곤 한다. 체득하기 무섭게 다음을 쫓는 트렌드에서 잠시 해방되고 싶은 순간, 우리는 훌쩍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발리 스미낙 해변의 가장 조용한 끝자락에 자리한 더 르기안 스미낙 & 더 클럽 바이 르기안(The Legian Seminyak & The Club by The Legian)은 '진정한 쉼'을 찾는 이들에게 휴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공간이다.

- 1 인도양을 바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더 르기안 스미낙의 섀넬 풀.
- 2 우드와 패드릭 소재의 조화가 멋진 레스토랑.
- 3 국제 미용 테라피 및 화장품 연명의 인증을 받은 테라피스트의 타치를 받을 수 있는 스파.
- 4 인피니티 풀과 인도양을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
- 5 가벼운 요리와 각테일을 즐길 수 있는 풀 바. 일몰을 감상하기에도 훌륭하다.
- 6 타인의 접촉 없이 완전히 프라이빗하게 즐기 좋은 더 클럽 바이 르기안의 풀 빌라.
- 7 전용 수영장장과 정원을 갖춘 더 클럽 바이 르기안의 전경.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비현실적인 감정이 몰려왔다. 발리와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부터 신선한 해산물을 활용한 지중해식 요리까지 맛볼 수 있는데, 다양한 와인과 페어링하기에도 그만이었다. 해가 지고 시야가 어두워지자, 바로 정면에 위치한 바다의 파도 소리가 공간을 메웠다. 자연과 나 혼자만 존재하는 듯 고요한 시간에 비로소 진정한 쉼이 체감됐다.

다음 날 아침, 조식은 호텔 맞은편에 위치한 클럽 라운지에서 이루어졌다. 로비로 내려오면 세심한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자연스레 버기를 타고 식사 장소에 다다르게 된다. 가슴을 탁 트이게 해주는 청록색 수영장 옆에 자리한 이곳이 호텔의 메인 식사 공간. 발리 전통 음식 베이스의 간단한 푸드와 다채로운 과일, 수프 등이 뷔페로 준비되어 있고, 아침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플레이트 또한 자유롭게 주문 가능하다. 스파 역시 더 르기안 스미낙이 추구하는 고요함의 연장선에 있다. 발리 전통 치유 철학을 기반으로 구성된

트리트먼트는 지친 몸과 마음을 천천히 이완하며 완전한 치유를 돕는다. 그 밖에도 엄선된 강사진의 요가 수업과 명상, 전문 트레이너를 갖춘 피트니스 센터 등 서두르지 않고 온전히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더욱 만족스럽다.

더 르기안 스미낙에서의 시간은 조금 느리게 움직인다. 1996년 개관 이후 단 한 번도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절제되고 완성도 높은 호텔의 본질에 집중해왔다. 공간을 채운 모든 요소 또한 결을 함께한다. 부족하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현대로 편안함을 선사하는 직원들의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 배려'를 추구하는 호텔의 미학과 맞닿아 있다. 발리 도시의 중심에서도 나만의 속도로 진정한 휴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이유다. 글 임나정/발리 현지 취재

더 르기안 스미낙 <https://lhm-hotels.com/en/the-legian-seminyak-bali> 더 클럽 바이 르기안 +62 361-730-622, <https://lhm-hotels.com/en/the-club-by-the-legian-seminyak-bali>



Heritage in Scents

오랜 헤리티지와 감도 높은 큐레이션으로 런던을 대표하는 디자인 브랜드 리버티(Liberty). 6만여 개의 패턴 아카이브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리버티 뷰티가 국내 첫 매장을 오픈한다. 럭셔리 니치 향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혁신적인 브랜드를 직접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의 등장은 늘 반갑다.



리버티뷰티의 시작

감각적인 큐레이션으로 런던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된 영국의 럭셔리 백화점 리버티(Liberty). 리버티가 전개하는 리버티 뷰티(LBTY)가 국내 첫 매장을 오픈한다. 럭셔리 니치 향수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요즘, 디자인 DNA와 향에 대한 철학, 장인 정신을 지닌 브랜드인 리버티 뷰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이 생긴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1875년, 영국 직물 상인 가문에서 태어난 아서 레이슨비 리버티(Arthur Lasenby Liberty)는 라센트 스트리트에 작은 가게를 열어 동양의 직물과 장식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매장은 점차 성장하며 예술과 디자인에 중점을 둔 독특한 제품을 선보였고, 이는 당시 미술 공예 운동과 아르누보 스타일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6만여 개의 다양한 패턴 원단의 아카이브를 보유하며 고급 수공예품과 패션 아이템으로 유명해졌으며, 오늘날까지도 창립자의 예술적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 리버티의 패턴 아카이브는 패션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에 가깝다. 런던에 디자인 본사 및 프린트 아카이브를 두고,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역 리버티 공장에 원단을 보관하며 헤리티지를 이어가고 있는

데, 2023년 출시한 리버티 뷰티는 이 패턴 아카이브에서 영감받아 탄생했다. 6만여 개의 아카이브 중 가장 큰 인기를 얻은 아홉 가지 패턴을 반영한 9종의 향수를 출시한 것. 리버티의 명성에 걸맞게 향수는 세계적인 조향사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고, 론칭과 동시에 큰 주목을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다. 덕분에 출시 이후 리버티 백화점에서 매출 순위가 눈에 띄게 상승하며 빠르게 존재감을 입증했다. 결국 리버티 뷰티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프래그런스 브랜드라는 영광의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이 향수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세계적인 퍼퓸머들이 직접 조향한 향분만이 아니다. 리버티의 헤리티지인 패턴이 반영된 과감한 디자인의 캡은 단순한 덮개가 아닌 스탠드로 활용 가능한 구조로, 향수를 넘어 예술과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진 하나의 예술품이다.

예술로 승화시킨 향의 품격

먼저 예술적이고 자유로운 우디 향의 튜더(Tudor)는 영국의 상공업 황금기 튜더시대의 숨결을 담았다. 조향은 20년 이상 경력의 피르미니치(Firminich) 소속 시니어 퍼퓸머 피에르 네그린(Pierre Negrin)이 맡았으

- 1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리버티 뷰티 제피린, 리버티 메이즈, 튜더, 와일드 로진다, 아델피 선.
- 2 옛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리버티 백화점.
- 3 리버티의 6만여 개 패턴 아카이브.
- 4 향수가 전시된 영국 리버티 뷰티 매장의 모습.



며, 리버티 건물에서 영감받아 장식적이면서도 보헤미안적인 우디 향을 창조했다고 전한다. 감렬한 생강, 육두구, 상쾌함을 더해주는 으레 주니퍼 베리의 향을 지나 깊은 우디 노트가 펼쳐지며 런던 소호 지역 보도에서 피어오르는 빗물의 향이 더해진다.

두 번째 향수는 상쾌하고 평온한 시트러스 향의 리버티 메이즈(Liberty Maze)다. 조향사 가브리엘라 첼라리우(Gabriela Chelariu)는 이 향수에 대해 "얼그레이 차향을 중심으로 플로럴과 시트러스 향이 대비를 이뤄 상쾌하고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선사한다"고 설명했다. 과수원(Orchard) 패턴은 잎이 무성한 1970년대 예술가의 그림 같은 정원 풍경이 펼쳐지는 듯한 향이다. 그 외에도 조향사 하미드 메라티-카사니(Hamid Merati-Kashani)가 완성한 싱그러운 식물 향의 아델피 선(Adelphi Sun), 프랭크 볼크(Frank Voelck)이 보여주는 풍요롭고 영적인 앤버 향의 제피린(Zephirine), 호노린 블랑(Honorine Blanc)과 아델피 선을 조향한 하미드 메라티-카사니가 공동으로 완성한 깊고 신비로운 플로럴 향인 와일드 로진다(Wild Rosinda) 등 아름다운 리버티만의 직물 패턴과 각자 개성 있는 향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 론칭을 앞두고 있는 리버티 뷰티의 향수들은 단순한 향수가 아닌 예술과 럭셔리를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다. 따라서 국내 프리미엄 향수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향수를 총괄한 감각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앞으로 오픈할 매장과 국내에서 론칭할 제품, 그리고 또 다른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문의 02-3443-2772

에디터 성정민

크리스찬 디올 뷰티 NEW
디올 아딕트 립 글로우 오일
#077 로지 캔디 체리 오일을
함유해 하루 종일 촉촉한
보습감을 선사하며, 미세한
글리터로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입술을 연출해준다.
6ml 5만2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신정임**

Editor's Pick

건조한 계절, 피부 컨디션을 산뜻하게 끌어올려줄 스킨케어부터
은은한 향의 프레이그런스까지. 에디터가 엄선한 이달의
뷰티 셀렉션.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룩시앙 카리테 콩포르 컬렉션
핸드 크림 룩시앙을 대표하는
 시아버터 라인이 리브랜딩을
 거쳐 '카리테 콩포르(Karite
 Comfort)' 컬렉션으로 새롭게
 출시됐다. 리치한 텍스처에
 시아버터 20%를 함유해
 겨울철 거칠어진 손에
 영양과 깊은 보습을
 더해준다.

150ml 4만2천원.
 문의 02-2054-0500
 _by 에디터 **신정임**

구찌 뷰티 알케미스트 가든 로사
인칸테센테 오 드 퍼퓸 달달한 다마세나
로즈 노트에 레드 시워드 향이 어우러져서
바다의 청량함을 머금은 듯 기분 좋은
잔향을 남긴다. 100ml 51만2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신정임**

샤넬 N°1 DE CHANEL
레드 가멜리아 에멀전
밀키한 제형이 피부에
바르는 순간 물로
변하면서 산뜻하게
흡수된다. 하지만 보습력은
탄탄하게 갖춰 데이
로션으로 바르기에 제격.
100ml 18만5천원.
문의 080-805-9638
_by 에디터 성정민

아우구스티누스 바더 더 리치 아이 크림
탄력 케어 성분인 아세 용담 뿌리 추출물과
매트릭인 안티-링콜 곰팡이로 노화에 보습과
활력을 제공한다. 15ml 29만5천원대.
문의 02-3438- 6065
by 인터넷 에디터 김보민

NEW POWDER

지방식 뷰티 프리즈 리브르
프레스드 파우더 H01
누드 베이지, 파스텔 핑크,
뉴트럴 핑크 하이라이터,
쿨 블루-핑크 등 네 가지 셰이드로
피부에 핑크와 광채를 선사한다.
7g 8만8천원대.
문의 080-801-9500
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에이피 큐티 M.D. 서렴
 쫄쫄한 제형이 피부에 안착하는
 순간 스르르 녹듯이 사라져
 흡수된다. 바른 부분에 은은한
 결광이 남아 고급스러운 피부로
 탈바꿈시키는 기적 서렴
 30ml 13만2천원대.
 문의 080-020-5757
 _by 에디터 **성정민**

글레드보 모테 라 크림
출시 이후 8세대까지 진화를 거듭한 만큼
피부 장벽 강화와 탄력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텍스처
역시 효능을 높이는 데 한몫한다. 50ml
1팩만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김하얀

나스 에프터글로우 립 밤
#트리플 엑스 시어버터
멘드를 함유해 입술에 닿는
간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아
환을 선사하며, 비타민 E가
매끄럽고 투명한 입술로
가꿔준다. 3g 4만2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김하얀

※ 성정민 (30대 민간선), 김하얀 (30대 건설), 신정임 (20대 복합성), 김보민 (20대 지·복합성)



1 프라다 패시지 백 프라다가 2026 봄/여름 런웨이 쇼에서 패시지 백을 최초로 공개했다. 클래식한 사다리꼴 실루엣에 입체적으로 조형된 거식으로 볼륨감을 강조했다. 플랩으로 중앙 수납공간을 고정하며 전면의 두 색션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넉넉한 수납공간과 편의성을 자랑한다.

문의 02-3442-1831

2 리버티 뷰티 1백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품 큐레이션 백화점 리버티 런던에서 탄생한 리버티 뷰티에서 '하수의 예술품(Work of Arts)' 컬렉션을 출시했다. 리버티의 상징적인 건물에서 영감을 받은 튜더 EDP, 시트러스 향이 특징인 리버티 메이즈 EDP, '아델피 여행'이 패턴에서 영감을 받은 아델피 시 EDP 등 총 9종으로 선보였으며, 리버티의 역사 깊은 아워워크 패키징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363-5454

3 브라이틀링 내비타이머 B01 코로나그래프 컬렉션
스위스 라피르 위치 브리넬 브라이틀링에서 70년
넘게 사랑한 내비타이머 컬렉션을 현대적인 세
련으로 만든 내비타이머 B01 코로나그래프 컬렉션
으로 선보였다. 회전 슬라이드 롤, 인덱스, 그리고 3
개의 코로나그래프 카운터와 작은 홈이 있는 베젤
이 특징이다. 41·43·46mm 사이즈와 2가지 케이
스 소재, 다양한 스트랩, 블루 컬러, 코퍼 등 2~4371
컬러 조합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792-4371

4 사별 파인 주얼리 숨바꼭질(Hide and Seek) 캠페인
 파인 사별 파인 주얼리에서 2026년 코코 크리쉬를 '숨바꼭질' 게임 모티브의 새로운 영상 캠페인으로 공개했다. 모든 공간마다 비밀을 간직한 전설적인 호텔 사토 마몽을 배경으로 술래로 등장하는 제니와 그녀를 피해 도는 새로운 그레이시 에이비르스가 출연하며, 은밀한 복도와 숨겨진 공간을 따라가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문의 080-8083-9628

5 그래프 버터플라이 컬렉션 영국 하이 주얼러 그
라프에서 버터플라이 컬렉션을 제안한다. 나비의 날

갯짓이라는 찰나의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제작했으며, 버터플라이 실루엣, 파베 버터플라이, 클래식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워치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50-2320

6 블랑팡 2026 빌레레 차이나즈 캤날 드 트래디셔널 블랑팡에서 2026년 말의 해를 맞아 빌레레 차이나즈 캤날 드 트래디셔널 2026 말의 해 에디션을 출시한다. 2012년 세계 최초로 구현한 중국 전통 달력, 그레고리력 날짜, 문예작품을 통합한 차이나즈 캤날 더 워치의 15번째 한정 에디션으로 선보였다. 3개의 메달을 통해 7월(1월68시간)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3479-1833

7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로미오 & 줄리엣 컬렉션 출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몽블랑에서 영국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새로운 필기구 컬렉션을 선보였다. 서사에 등장하는 애ゆ선정과 상징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 깃털, 나뭇잎 패턴, 캠티프와 콘에 장식한 가시, 장미 등의 디테일로 표현한 것이 특징. 각 필기구 상단에 레드 액센트를 더해 사랑과 열정, 그리고 희생의 색으로 컬렉션의 정서적 깊이를 강조했다.
 문의 1777-5408

8 셀린느 스몰 크리스탈 파우치 셀린느에서 스몰 크리스탈 파우치를 제안한다. 아이코닉한 트리옴프 참 디테일의 드로스트링 잠금장치가 특징이다. 울트라 블루, 블랙, 시라, 사파리 등의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탈착 및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을 이용해 솔더백 또는 크로스 보디 백으로 연출할 수 있다. **모델 1577-8841**

9 시몬스 2026 S/S 프레임 신제품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2026 S/S 프레임 신제품을 출시했다. 슈퍼 싱글 매트리스 2개를 하나의 프레임에 놓을 수 있는 하우더, 20세기 유럽 모던 가구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르벨르, 미드센추리 감성의 간결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테피, 저상형 프레임으로

동양적인 여백의 미를 강조한 플래토 등 6종으로 선보였다. 문의 1899-8182

10 크리스찬 디올 뷰티 울트라 글로우 리미티드
에디션 크리스찬 디올 뷰티에서 다가오는 봄을 맞
아 2016 스프링 룩 메이크업 컬렉션 '울트라 글로
우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핑크 보는 민트 컬러
러의 2가지 컬러 조합으로 선보이는 아이섀도 팔레
트 디올슈 5 폴릭르, 스틱 블러셔 디올 로지 글로우
스틱, 라이드 하이라이더 디올 포메버 글로우 맥시
마이저 등 총 13종의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문의 080-342-9500



COCO CRUSH NECKLACES AND EARRINGS IN BEIGE GOLD
OR WHITE GOLD, WITH OR WITHOUT DIAMONDS

COCO CRUSH

CHANEL
FINE JEWELRY